



M U J U
MUJU YG FOUNDATION



SEOUL YOUTH MEDIA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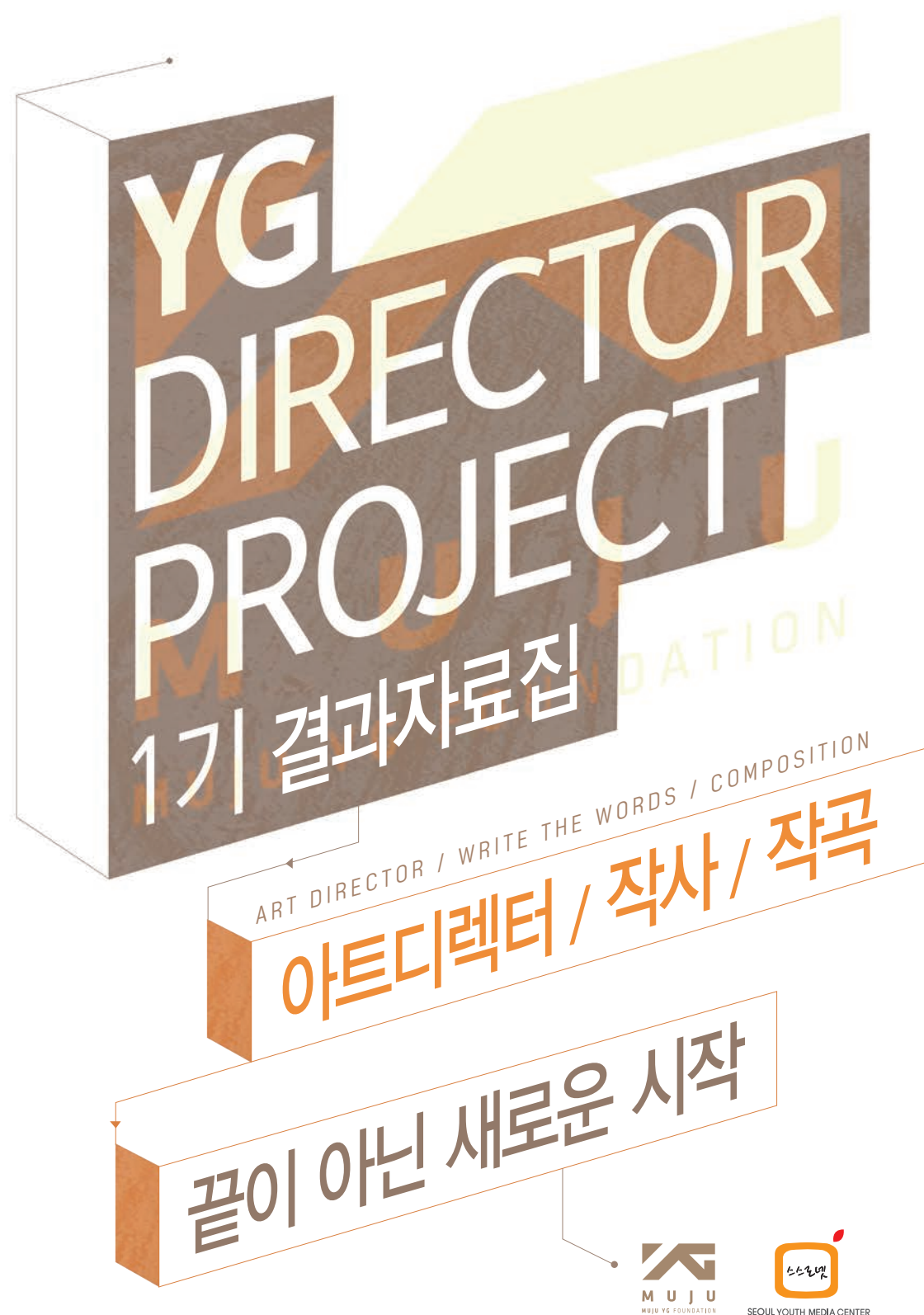


함께 서울
시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



푸른나무
청년단
Happy Friends

이 책은 2015 YG DIRECTOR PROJECT에 참여한 20명 청소년들의
활동 사진과 이야기를 담은 결과자료집입니다.



YG DIRECTOR PROJECT

1기 결과자료집

ART DIRECTOR / WRITE THE WORDS / COMPOSITION

아트디렉터 / 작사 / 작곡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YG DIRECTOR PROJECT

2015 YG 디렉터 프로젝트

YG 디렉터 프로젝트(이하 YGDP)는 아트디렉팅/작사/작곡에 재능과 열정이 있지만 교육 기회가 없었던 청소년들을 선발하여 현장 전문가와 함께 전문교육 및 제작활동을 지원하는 청소년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인재 양성 프로젝트입니다.

YGDP는 YG엔터테인먼트에서 설립한 무주YG재단과 서울시로부터 푸른나무 청예단이 위탁 운영하는 서울시립 청소년미디어센터가 공동기획으로 2015년 처음 진행하였습니다.

2015 YG 디렉터 프로젝트

사업 진행기간 2015년 7월 ~ 2016년 3월

대상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14~19세 청소년 중 아트디렉팅/작사/작곡에 대한 열정이 있으나 교육 접근이 어려운 환경에 있는 청소년 20명

연인원 1,206명(총 120회)

활동내용

- 아트디렉터, 작사, 작곡 팀별 교육(20~22회차)
- 현장교육 : YG엔터테인먼트 사옥 방문 & 직원과의 만남, 강욱진 작곡가 특강,
전문 녹음 스튜디오 견학, YG 아티스트(위너) 콘서트 단체관람
- 문화공연 관람 지원 : 개인 진로와 관련된 공연, 콘서트, 뮤지컬, 연극 계획서 작성 후 관람비 지원
- 개인교통비 지급 : 프로젝트의 원활한 참여를 위해 개별 교통비 지급
- 결과발표회
 - 일 시 : 2016년 2월 20일(토)
 - 작곡팀 : YGDP 1기 대표곡 <PANORAMA> 공동작곡, 개인 자작곡 4곡 공연 및 발표
 - 작사팀 : YGDP 1기 대표곡 <PANORAMA> 공동작사, 개인 개사곡 5곡 공연
 - 아트디렉터팀 : YGDP 1기 대표곡 및 자작곡 앨범아트 디자인, YGDP 1기 로고 및 기념품 제작,
결과발표회 기획, 앨범리디자인 10작품 전시

〈YG DIRECTOR PROJECT〉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한 이해와 작곡 작사 및 아트디렉터 교육을 지원한 프로젝트입니다.

지난해 서울과 수도권 내에서 선발된 20명의 청소년들이 〈YG DIRECTOR PROJECT〉를 함께 한지 어느덧 반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청소년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보낸 시간은 낯선 친구들과 선생님들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 할 수 있는 분야와 재능에 대해 알아갈 수 있는 기회的时间이었습니다. 또한 작곡과 작사, 아트디렉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얻는 배움의 장이기도 하였습니다.

항상 예민하고 자기만의 생각에 빠지기 쉬운 청소년 시기에 음악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가슴속에, 기억 속에 이 시간들이 좋은 추억으로 남아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 있어 좋은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꾸준히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수료한 청소년들의 성실함에 찬사를 보내고, 매 수업마다 알찬 커리큘럼으로 청소년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을 준비하신 각 강사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YG DIRECTOR PROJECT〉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기울여주시고, 프로젝트의 진정성과 완성도를 위해 세심한 준비를 해주신 서울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관계자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무주YG재단은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미디어센터

〈YG DIRECTOR PROJECT,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은 작사, 작곡, 아트디렉팅 3팀 20명의 아이들이 함께한 5개월의 여정을 담았습니다.

〈YG DIRECTOR PROJECT〉 1기에게 이번 도전은 막연하던 꿈을 현실로 이뤄내면서 가능성과 확신을 얻는 계기가 되었을 겁니다. 노력과 협력의 중요성, 그리고 언제나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잊지 않으며 작은 도전과 성공을 계속 경험하길 바랍니다.

무사히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자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무주YG재단과 YG엔터테인먼트 직원분들, 현장감 넘치는 교육에 애정을 듬뿍 담아주신 강사님들, 멘토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스스로넷은 프로젝트 참여를 위해 아름다운 도전을 했던 578명의 지원자와 YG 디렉터 프로젝트 1기 친구들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이어갈 수 있도록 무주YG재단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꿈이 있다는 건 이렇게 아름다운 거구나' 느낄 수 있게 반짝이던 눈, 작업이 마음처럼 풀리지 않을 때 찡그리던 코, 시간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 하느라 올라가 있던 입꼬리. 이 모든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전해지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서울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목차

여는글

2015 YG 디렉터 프로젝트	2
무주YG재단	3
서울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4

함께한 사람들

YGDP 1기	6
팀 강사 & 대학생멘토, 고마운 분들	10
무주YG재단, 청소년미디어센터	11

준비, 시작

597명, 도전하다	12
20명, 함께하다	13

팀별 수업

작사팀	18
작곡팀	38
아트디렉터팀	58

공동 활동

YG사옥 투어	74
YG작곡가 특강	77
결과발표회 준비	78
YGDP 대표곡 작사&작곡중	79
결과발표회 컨셉회의	81
졸업앨범 촬영	82
결과발표회 & 수료식	83
YGDP 자작곡 & 리디자인 앨범커버	86
개인별 문화공연 관람지원	88
위너 콘서트 단체 관람	90
평가회의	92

활동 소감

YGDP 활동소감	93
-----------	----

함께한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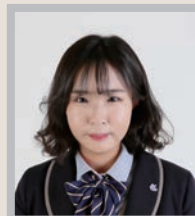
YGDP
1기
작사팀



김세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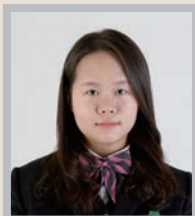
남승엽



박수정



송민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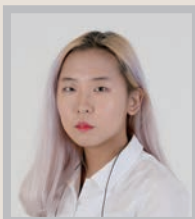


정연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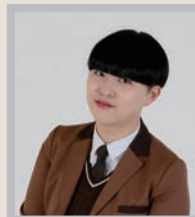
YGDP
2기
작곡팀



강유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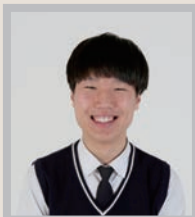
박세한



유다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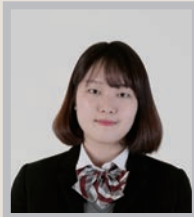


이진이



지훈

YGDP
1기
아트디렉터팀



길보민



김은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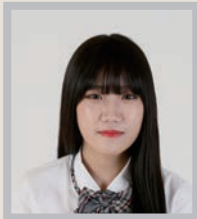
김하림



류지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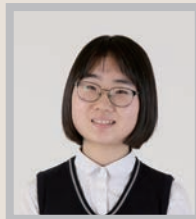
박예은



서승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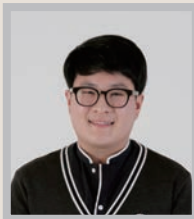
성은비



신혜정



원혜빈



한동희

YGDP 1기
졸업사진(팀별)



아트팀





작곡팀



작사팀



● 팀 강사



김민지 작사가



이엘 작곡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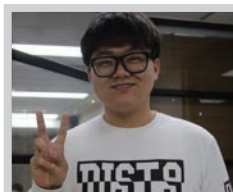


김대홍 아트디렉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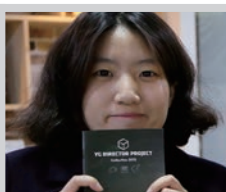


윤연재 디자이너

● 대학생 멘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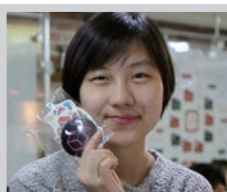
이석우



정효범



김서영



최이슬

고마운 분들

서울시 교육청 최재광 장학관 & 문영순 주무관, 제자들을 위해 정성껏 추천서를 써주신 고경모 선생님, 김정민 선생님, 송진권 선생님, 조은미 선생님, 변은주 선생님, 신은주 선생님, 변가영 선생님, 유용형 선생님, 강태권 선생님, 이경순 선생님, 박이래 선생님, 백수연 선생님, 안지윤 선생님, 이현주 선생님, 최인섭 선생님, 조효진 선생님, 김정은 선생님, 장지원 선생님, 이상윤 선생님, 양승학 지도자, 노래 불러 주신 이수희님, 김지경님, 레인그린, 그리고 엘다이어리 오승창님, 김영웅 음향감독님, 강욱진 작곡가, 강규용 프로듀서 등 YG 엔터테인먼트 직원분들, 청소년미디어센터 선생님들 외 프로젝트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무주YG재단&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이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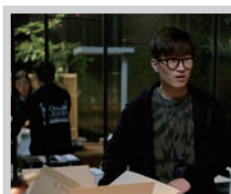
최성준 이사



이효정 사무국장



강산희 대리



김희태 담당



이현아 인턴

●서울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스스로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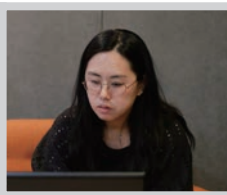
김형래 관장



이정연 운영기획부장



구민희 팀장



김경은 팀장



김이현 담당



오혜원 담당

준비, 시작

597명, 도전하다.

포스터, 문의, 접수, 응원 댓글

YG 디렉터 프로젝트, YGDP가 꼭 필요한 지원자들을 만나기 위해 서울·경기·인천 중·고등학교에 모집 공문과 포스터가 발송되었고, 보도자료, 온라인, SNS 등에서도 모집홍보를 시작했습니다. 공문을 보자마자 제자가 생각났다고 추천 방법에 대해 문의하신 선생님, 자녀가 정말 하고 싶어 하는데 이 분야에 잘 모른다고 진로 상담을 해오시던 부모님, 쉬는 시간마다 궁금한 점을 물어보던 청소년 등.. 많은 관심으로 접수 마감 후에도 문의전화는 계속되었답니다. 접수 시간 내에만 597명이 지원하였고, 총 486개의 문의·응원 댓글이 달렸어요. 지원서류가 많아 예정된 1차 합격자 발표가 늦어지자 더 늦어도 좋으니 꼼꼼한 심사 부탁한다는 글, 본인은 합격하지 못했지만 꿈을 위한 도전을 멈추지 않겠다며 합격한 친구들도 함께 응원하는 지원자까지! YGDP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응원으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illegible][illegible]

2015

2015 YG DIRECTOR PROJECT 최종합격자 발표

2015.09.24 | 0206-4009

http://www.ygmc.co.kr

인스타그램
지남 로고와 연관 있는 모든 것을 주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고 운영진과 심사위원들께 좋은 것을 느끼게 해 시간의 여유를 주십시오.
최종 합격자는 예행연습을 통해 10월 10일까지 10명, 작사팀 5명, 작사팀 5명으로 총 20명이 선발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꿈을 위해서 연필을 만들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2015 YG DIRECTOR PROJECT 최종합격자

아티스터리티	작곡팀	작사팀
김보* (19981027)	강유* (20010201)	김새* (19970304)
김은* (19980924)	원지* (19990327)	남승* (20001226)
김은* (19980526)	원지* (19971212)	박우* (19980315)
김지* (20000324)	원지* (19990524)	송민* (19980320)
박재* (20010806)	지* (19991226)	정민* (19980206)
서승* (19980329)		
서은* (20000102)		
신혜* (19990624)		
윤재* (19980511)		
한승* (19980702)		

20명, 함께하다.

면접, 오리엔테이션, 발대식

면접

(2015.09.19, 스스로넷 1층)

예상보다 많은 지원자로 인해 계획보다 조금 더 많은 친구들을 면접에서 만나보기로 했어요. (작사팀 15명, 아트디렉터팀 24명, 작곡팀 19명) 오전부터 진행된 면접은 저녁 6시가 넘어서야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역시나 우리 친구들은 열정이 넘쳤습니다. 작사팀과 작곡팀 면접에서는 리듬감을 알아보기 위해 대부분의 친구들이 노래를 불렀는데, 면접 대기실까지 들리는 노래 소리 때문에 '준비 안했는데 노래도 불려야 하나'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나네요. 아트디렉터팀은 평소 그림 그리던 노트, 작업물을 준비해서 보여주기도 했어요.

스스로넷 유형우 관장님, 이정연 부장님, 무주YG재단 김희태님, 이현아님 그리고 각 팀별로 이엘 작곡가님, 김민지 작사가님이 면접관으로 참석하여 친구들의 숨겨진 열정과 재능을 놓치지 않기 위해 마지막까지 열띤 회의를 했습니다.



오리엔테이션

(2015.09.30. 스스로넷 3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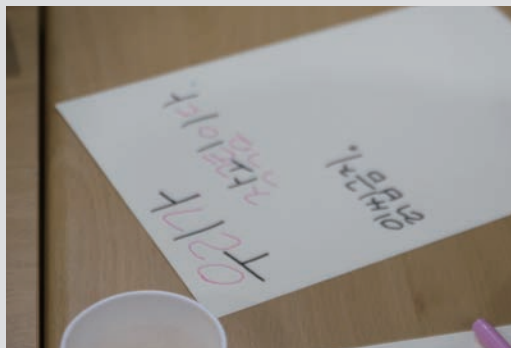
짹짹~ 무려 30:1의 경쟁률을 뚫고 최종 선발된 20명의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오리엔테이션은 YG 디렉터 프로젝트의 목적과 취지, 목표를 이해하고 멘토샘들과도 친해지기 위해 발대식 전에 진행했어요.

청소년미디어치료상담센터 김은혜 선생님이 어색한 듯 어색하지 않았던 첫 만남을 도와주셨는데요, 식상하고 부끄러운 자기소개 대신 비주얼씽킹과 명함 만들기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나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무주YG재단 희태샘과 현아샘도 작곡팀, 아트디렉터팀에서 함께해주셨어요.



멘토쌤들과 각 팀 규칙도 자유롭게 정해봤는데요. ‘일씹, 안일씹 금지’부터 ‘지각하면 노래 1절 부르기’ 등 규칙
에서부터 팀별 색깔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발대식

(2015.10.03. 스스로넷 1층)

면접을 봤던 바로 그 곳에서 YG 디렉터 프로젝트 1기의 공식적인 시작을 알리는 발대식을 진행했습니다. 면접 때와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 우리는 같은 옷을 입고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 나가게 되었다는 것일까요?

앞으로 프로젝트를 하면서 지치고 힘든 시간이 오더라도 처음의 열정 그대로, 같은 꿈을 꾸는 친구들과 함께 잘 이겨내길 바란다는 응원의 말씀과 YG 디렉터 프로젝트 공식 ID카드(교통카드 겸용)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합격했다는 게 얼떨떨하고 믿기지 않는다는 소감부터, 나중에 YG에 취직하겠다는, 심지어 SM에 취직하겠다는 당찬(?) 각오까지. 소감과 각오는 각양각색이었지만, 앞으로 프로젝트에 열심히 참여해서 많은 것을 배워가겠다는 의지와 약속만큼은 20명 모두 한 마음이었어요.



무주YG재단과 스스로넷이 YG 디렉터 프로젝트를 위한 첫 미팅을 진행한지 205일 만에 만나게 된 1기 친구들. 그 중 가장 먼저 지원했던 예은이와 마지막 1분을 남기고 지원한 세희, 무려 76km를 오가게 될 진이. YG 디렉터 프로젝트의 첫 역사가 될 1기 20명의 친구들이 모두의 응원 속에서 꿈을 펼칠 준비를 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5개월 간의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135일(실제 141일) 뒤에 지금 함께한 이 모두가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길.



팀별수업 〈작사팀〉

작사팀은 YGDP 타이틀곡 〈PANORAMA〉 작사와 개별곡 〈고장난 시곱바늘〉, 〈널〉, 〈Moonlight〉, 〈나는 한 개도 안슬프다〉, 〈당신의 시간〉을 개사하여 결과발표회 공연도 선보였습니다.

- 매주 월요일, 목요일 18:30~21:30 스스로넷 Link9(study)
- 수업강사 : 김민지 작사가, 대학생멘토 이석우
- 담당지도자 : 오혜원
- 작사팀 : 김세희(19), 남승엽(16), 박수정(18), 송민주(18), 정연우(18)

• 작사팀 교육 커리큘럼

주차	강의 주제	강사
01	대중음악 가사 이해, 곡의 구성, 글자수 표기 실습	김민지
02	글자수 표기 실습, 팝송 개인 실습	
03	발라드 가이드곡 조별 실습, 팝송 개인 실습	
04	미디엄템포 가이드곡 조별 실습, 미디엄템포 팝송 개인 실습 - Four Play 'Let make love'	
05	미디엄템포 가이드곡 조별 실습 - 빅스 'Spider'	
06	6주차: 댄스 가이드곡 개인 실습 - 'GOT7 딱 좋아'	
07	댄스 가이드곡 개인 실습 - 슈퍼주니어 'Magic'	
08	댄스곡 조별 실습 - 레드벨벳 'Don't U Wait No More'	
09	팝송 개인 실습 - Maroon5 'Sugar'	
10	팝송 개인 실습 - Bruno Mars 'Marry You', 엑소더스 'hold 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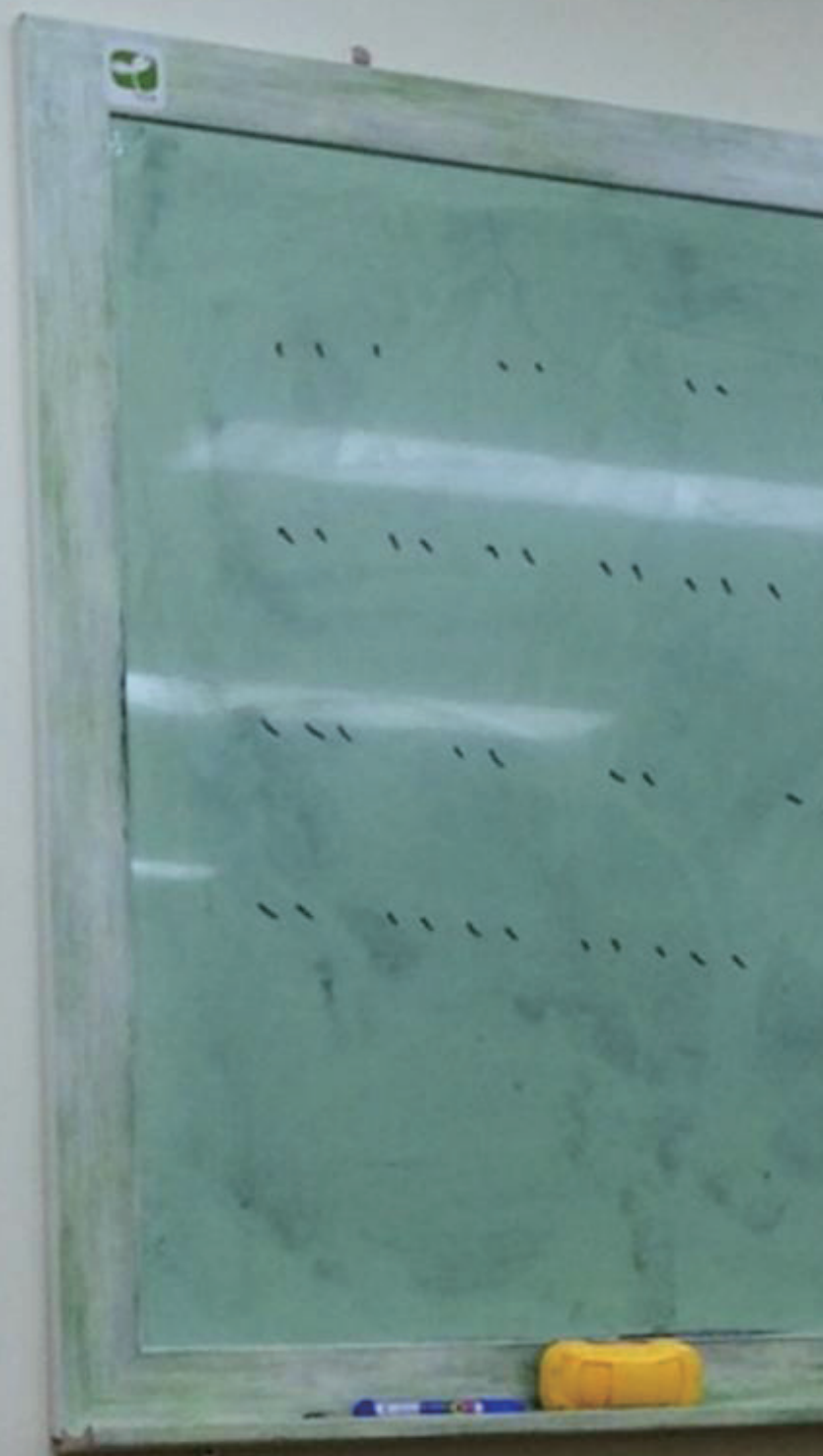
1주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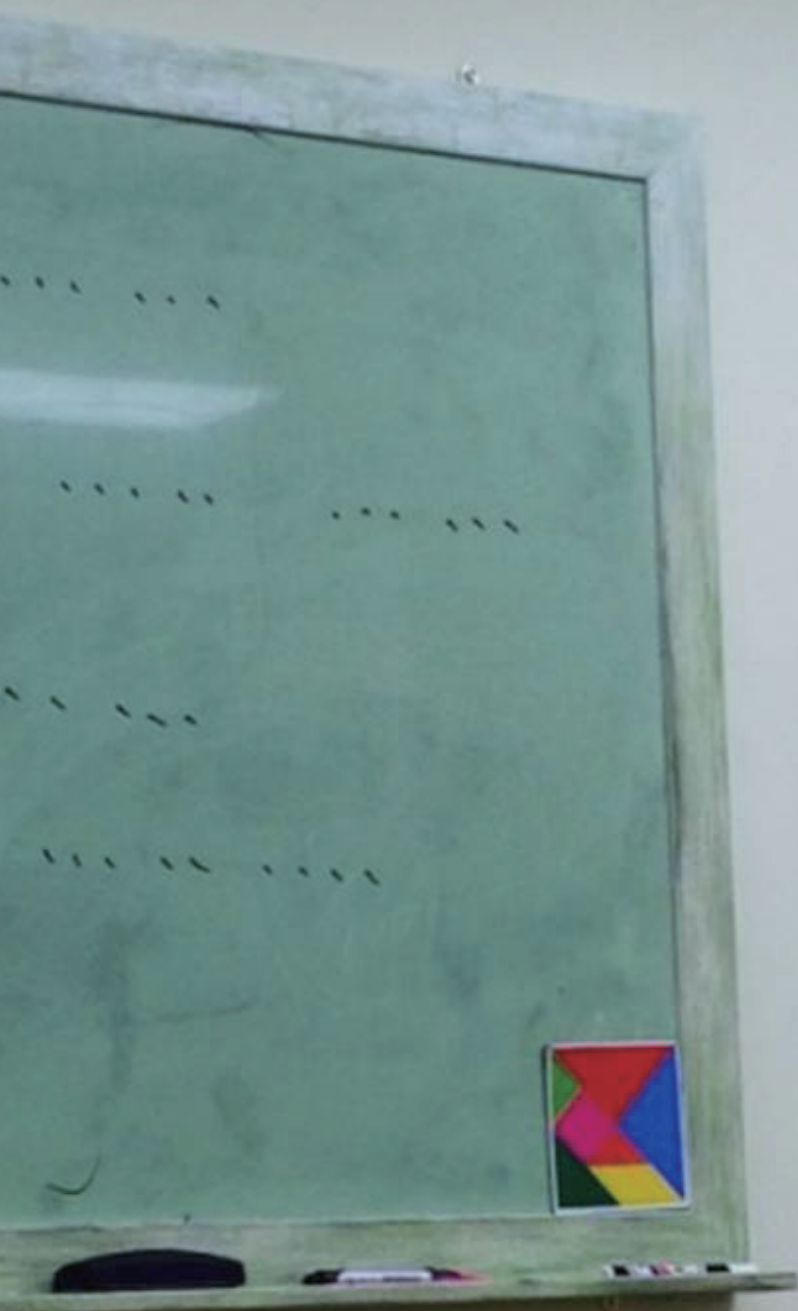
대중음악 가사 이해, 곡의 구성, 글자수 표기 실습



작사 수업이라고 하면 무조건 글쓰기부터 시작할 줄 알았는데, 먼저 대중음악에서 가사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 지부터 차근차근 설명해주셨습니다. YG 디렉터 프로젝트 작사팀 수업은 대중의 취향을 저격할 수 있는 대중 가사를 써보는 것이 수업의 목표이기 때문이죠. 또, 서로의 음악 취향도 알아볼 겸 최근 대중음악 가사 트렌드에 대해서 다같이 이야기 해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앞으로 작사 수업에서는 가사를 쓰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주제의 다양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는 스토리텔링 시간이 더욱 더 중요해 질 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가사를 쓰기 전에 익혀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었어요. 어떠한 장르의 곡이든 가사를 쓰기 위해서는 그 전에 글자수 표기가 완벽하게 되어 있어야 한다고요. 각자 입으로 나나나, 따따따, 를 중얼거리면서 글자수에 맞게 점을 찍었어요. '그냥 듣기만 할 때는 분명 느린 음악 같았는데 글자 수를 세려고 하니 엄청 빠르게 느껴졌어요'







2주차

글자수 표기 실습, 팝송 개인 실습

사실 작사팀은 첫 주부터 과제가 있었어요. 각자 원하는 팝송을 한 곡 골라서 1절까지 글자수를 세고 가사까지 써오는 것이었습니다. 또, 작사 과제를 할 때에는 그냥 가사만 쓰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가사의 주제와 어떤 가수가 불렀으면 좋을지 까지 생각해봐야 했어요. 하지만 작사팀 친구들에게 과제를 해오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었으니.. 바로 과제 발표하기! 아직까지는 친구들 앞에서 자기가 쓴 가사를 직접 노래로 부르는 것이 엄청 부끄러웠던 때였거든요. 이럴 때 용기 내서 첫 발표를 해주는 수정이!

사랑, 음악, 개인적인 감정 등 가사를 통해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섯 명 모두 제각각이었습니다. 이럴 때 바로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다양한 생각을 말하고 들어보는 것이 중요한 거죠.

벌써부터 글자수 표기가 거의 틀린 부분이 없었고 가사도 전체적으로 기대 이상이어서 민지 선생님도 깜짝 놀라셨어요! 앞으로 수업 전 일찍 오는 친구들끼리 자체적으로 글자수 표기 연습을 해보기로 했고, 특히 글자수 표기를 가장 낫설어 하는 막내 승엽이는 수정이가 전담 도움해주기로 했습니다.



3주차

발라드 가이드곡 조별 실습, 팝송 개인 실습

작사팀 수업은 과제 비중이 굉장히 높는데, 다들 안 빼먹고 항상 열심히 해왔어요. 지난주 팝송 과제 1절에 대해 선생님이 해주신 피드백을 참고해서 더 훌륭한 2절을 완성해왔습니다.

이렇게 개인 가사 작업은 숙제로, 수업 시간에는 조별 작업을 위주로 했어요. 현직 작사가이신 김민지 선생님은 특별히 작사팀 친구들을 위해서 수업 시간 실습곡으로 미발표 가이드곡도 많이 준비해주셨습니다.

이번 주 발라드 가이드 곡은 연우, 세희, 승엽이가 한 팀, 수정이와 민주가 한 팀으로 해보았습니다. 매번 서로 다른 친구들과 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했어요. 팀 작업 할 때는 무조건 의견 교환 많이 하기! 이번주는 간식으로 마셨던 카프리썸이 가사의 소재가 되기도 했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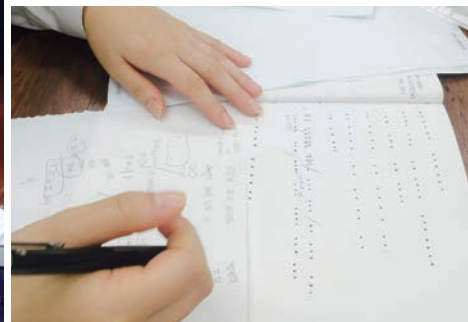


미디어템포 가이드곡 조별 실습,
미디어템포 팝송 개인 실습

작사팀과 나이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 이석우 멘토 덕분에 작사팀 분위기가 급속도로 화기애애해졌습니다. 청일점 막내 승엽이의 든든한 형이기도 했어요. 특히 승엽이는 랩 가사를 쓰는 것에 익숙해서 글자수 표기에 계속 어려움을 느꼈는데, 마침 석우 선생님이 랩을 좋아해서 그들만의 눈높이 합침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개인 과제로는 Four Play의 'Let make love'라는 미디엄템포 팝송에 가사를 붙여봤습니다. 승업이는 'Look'이라는 제목으로 크러쉬가 부르는 프로포즈 곡을, 민주는 '약속해'라는 제목으로 에디킴이 부르는 프로포즈 곡을 적어왔어요. 세희 역시 사랑하는 연인에게 조심스럽게 고백을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연우는 헤어진 여자를 떠올리며 여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내용의 가사를 써왔는데, '봄이야'라는 제목과 후렴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타리를 봄이라는 계절에 비유했다고 해요. 같은 곡인데 서로 가사 주제가 전혀 다르죠?

“봄이야 네가 온 계절 봄봄봄 그러니 돌아와
나에게 말해주니 다시 또 입을 맞추줘
난 네가 있어야 봄이야 난 네가 있어야 봄이야”
- 정여운



미디엄템포 가이드곡 조별 실습

주말까지 나와서 작업하던 이번 팀별 실습곡은 중독성이 굉장한 강한 박스의 'Spider'. 내가 쓴 가사가 발표된 것은 아니지만 웬지 기분이 설레었다는 친구들. 덕분에 민지 선생님도 첫 가사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때를 회상하면서 추억에 잠기셨어요. 작사팀 친구들이 붙인 가사가 흘러나오게 될 날도 곧 오겠죠?

작사팀 친구들이 붙인 그 곡의 가사는 어떤 피드백을 받았을까요? 기본적으로는 라임을 맞추는 연습을 하되, 연속적으로 반복되는 라임은 지루해질 수 있음을 기억하라고 조언해주셨어요.



“몇 번 씩 핸드폰 화면을 켜 봐
알람이 오면 나는 우와”
- 남승엽

작사팀은 합평 방식으로 서로의 가사에 대해 의견을 주고 받습니다. 대중가사이기 때문에 다양한 시선이 필요하죠.



댄스 가이드곡 개인 실습

점차 진도에 속력이 붙는 작사팀을 위해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서 새로 준비한 곡은 슈퍼주니어의 'Magic'이 있습니다. 하지만 체감 난이도는 수직 상승! 빠른 템포도 템포지만, 정해진 글자 수가 있는 랩 파트의 가사를 적는 것이 특히 어려웠다고 해요. 그 부분은 원래 아마추어 작사가들도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라고 하네요. 민주는 정해진 시간 내에 완성하는 초능력을 발휘한 덕분에 그 동안 배워보고 싶던 DSLR 카메라로 맘껏 친구들 사진을 찍을 수 있었어요.

승엽이는 새로운 곡 진도를 나갈 때마다 글자 수를 정확하게 세어보는 것도 함께 목표로 하고 있고, 이제 글자 수를 세는 것에는 어느덧 익숙해진 누나들은 멜로디가 가진 박자를 좀 더 신중하게 고민해서 가사를 써보기로 했습니다.





댄스 가이드곡 개인 실습,
댄스곡 조별 실습

난이도 최상의 슈퍼주니어 'Magic'에서 99% 완벽하다는 극찬을 받아 낸 또 한 명의 초능력자가 있었으니, 바로 작사팀 에이스 수정입니다! 수정이는 노래의 제목에 어울리게 마법처럼 여자에게 빠진 남자를 주제로, 카드 마술을 연상시키는 가사를 썼어요. 대학생이 되면 민지쌤 계신 작사가 데뷔반으로 갈 거라고 줄곧 이야기하던 수정이다워요.

“네 웃음은 flower

Chocolate shower 같은 눈빛 (네게로 흘러가는 내 맘)

숨긴 네 카드 클로버

궁금해 참을 수가 없는 나 (내겐 가려진)"

- 박수정

[illegible]

민주는 같은 제목으로, 꿈에서만 보이는 마술 같은 여자에 대한 가사를 썼습니다. 지난 시간에 빨리 마무리한 덕분에 피드백도 한 번 더 받고, 더 완성도 있는 가사를 써왔어요. 민주와 비슷하게 연우는 'Magic'을 'Dream'으로 바꿔서 꿈 속 여자에 대한 마음을 담았습니다.



이어서 오랜만에 레드벨벳의 'Don't U Wait No More'이라는 곡으로 팀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곡은 간단하고 빠른 속도로 연습해보기 위해 원곡을 들으면서 개사했어요. 이보다 더 꿀 떨어지는 가사를 쓰려고 말겠다며 신이 난 승엽&수정&연우는 센스 있는 도입부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동안 항상 남자 아이돌 음악만 다뤘어서 이번 곡이 살짝 어색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세희&민주는 가수에 맞춰 좀 더 레드벨벳스러운 가사를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팝송 개인 실습

이제 작사팀도 작곡팀의 대표곡에 5명이 함께 한 곡의 가사를 쓸 준비를 술술 해야겠죠? 복습 겸 연습의 느낌으로 다시 템포를 살짝 낮춰 Maroon5의 'Sugar'에 맞춰 가사를 써보았습니다. 특히 연우는 원하는 팝송에 가사를 써오는 첫 과제 당시에 이 곡을 이미 했었기 때문에 그 간의 발전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 따스하게 날 안아줘 내 귤가에다 속삭여줘
더 달콤하게 짜릿하게 ooh babe”
- 송민주

수정하는 이제 글자수를 완벽하게 마스터한 덕분에 좀 더 꼼꼼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고, 승엽이는 확실히 어긋나는 글자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 눈에 보여요. 민주는 평소 문장형 가사를 쓰는 경향이 있는데, 댄스 곡은 특성상 임팩트 있는 짧은 가사로 마디를 끊어 쓰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연히 민지쌤의 생일을 알게된 작사팀! 깜짝 생일 파티를 준비했어요. 민지쌤이 워낙 눈치가 빠르셔서 바로 알아차리실까봐 다들 걱정했는데, 서프라이즈 대성공이었습니다!

전혀 모르셨다는 말에 한 번 기분 좋고, 이런 깜짝 파티는 처음 받아보신다는 말에 두 번 좋았던 시간이었어요. 케이크가 입장하기 전까지 다들 수업에 집중은 할 수 있었을까 몰라요~ 손편지도 감동적! 이 날 세희가 함께 하지 못했던 게 아쉽네요.



파송 개인 실습

남은 한 주는 각자에게 조금이라도 더 많은 것을 알려주시고 싶은 마음에, 개인의 속도에 맞춰 평소보다 많은 곡을 다루어주셨습니다. Bruno Mars의 'Marry You'로 외국곡에 한국어 가사를 쓰는 연습을 마치면서, 곡 분위기를 파악해서 그에 어울리는 가사를 찾아야 한다는 걸 꼭 기억하라고 한 번 더 강조하셨어요. 기존 곡과는 다른 가사를 써야 한다는 부담감에 'Marry You'가 밝고 경쾌한 분위기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영어로 가사를 써보는 연습이 가능한 엑스더스의 'Hold on'도 들어보았습니다. 항상 시적인 가사를 쓰는 세희는 아포칼립스 속의 나와 나, 이별과 잊혀짐, 마지막이라는 주제를 곡의 분위기에 맞게 녹여내 주었습니다.

“세상이 멈춘 시간 속의 너와 나 마지막 손을 잡아줘
잊지 않게 속삭여줘 이 우주의 소멸은 끝이 아니라고”

- 김세희

짧다면 짧은 기간 동안 거의 모든 종류의 가사 실습을 다 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결과발표회에서 완성된 가사를 만나는 일만 남았습니다.





ㄱ 넣고 싶은 말을 음악의 글자수에 맞춰 억지로 줄이거나 늘려 넣는 것은 안 좋은 습관이에요. 이럴 땐 도치를 통해서 글자수에 맞는 다른 자리에 넣어볼 수도 있고, 이 방법마저 어려울 때는 과감히 버릴 줄 알아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ㄱ 글자수 표기를 할 때 같이 표시해주면 나중에 가사를 수정할 때 더 수월하게 표현만 바꾸어 줄 수 있어요.

1. 라임을 맞추어야 할 부분에는 동그라미
2. 멜로디에 맞추어 끊어주어야 할 곳에는 사선



이석우 멘토가 본 YGDP 작사팀



김 세 희

“세희는 작사팀 친구들 중 음악에 대한 애정이 가장 큰 친구였어요. 자신의 꿈에 대한 계획과 자신만의 음악세계에 대해 확신이 있었죠. 아플 때도 수업에 결석하지 않고 집중하려는 모습이 너무 멋있었어요.”



남 승 엽

“승엽이는 프로젝트 참여 당시 중학생이었기 때문에 아직은 자신의 꿈에 대해 막연한 환상과 기대를 잔뜩 가지고 있어 보였어요. 또, 작사 수업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글자수 표기가 평소 좋아하던 랩 가사를 쓰는 방식과 달라서 낯설고 어려워했어요. 하지만 그만큼 항상 한 시간씩 일찍 와서 과제도 마무리하고 가사도 더 써보고, 프로젝트 참여에는 그 누구보다 애정을 가졌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변화를 할 수 있지 않았나 해요.”



박수정

“수정이는 저와 함께 작사팀의 분위기를 이끌어 준 고마운 친구예요. 글자수 표기를 어려워하던 승업을 도와주고, 초반에 낯을 가리던 연우를 자연스럽게 동화될 수 있도록 먼저 나서주었죠. 수정이 본인도 글자수 표기나 가사 표현력 등 작사 과제 전반에 있어서 가장 좋은 피드백을 받고 프로젝트를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송민주

“민주는 여러 말 필요 없이 출석률 100%,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수업은 댄스곡 위주로 진행되었지만, 감정 표현이 워낙 좋아서 나중에 서정적인 발라드 작업을 하게 될 경우 앞으로가 기대되는 친구예요.”



정연우

“연우는 처음에 속을 잘 드러내지 않고 낯을 가려서 친해지기 위해서 가장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작사에 대해서는 욕심도 가장 많고 열의가 넘쳐서, 쉬는 시간에도 가사를 수정하거나 되새기는 시간이 많았고 적극적인 질문덕분에 가장 구체적인 피드백을 많이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팀별수업
〈작곡팀〉

작곡팀은 공동작곡 〈PANORAMA〉와 개인 자작곡 〈순우유호빵〉, 〈Be My〉, 〈MANIC〉, 〈take it slow〉 총 5곡을 완성했습니다.

- 매주 월요일, 목요일 18:30~21:30 스스로넷 Link5(pc zone)
- 수업강사 : 이엘 작곡가, 대학생멘토 정효범
- 담당지도자 : 오혜원
- 작곡팀 : 강유진(15), 박세한(17), 유다영(19), 이진이(17), 지훈(17)
- 작곡팀 교육 커리큘럼

주차	강의 주제	강사
01	기초 음악 이론 : 표와 음자리표, 음이름, 음표와 쉼표, 온음과 반음, 변화표와 임시표, 박과 박자	이엘
02	기초 음악 이론 : 음정, 음계(장/단, 교회선법)	
03	기초 음악 이론 : 조와 조성, 이조와 전조, 화음과 화성	
04	기초 음악 이론 복습 '오늘은 내가 선생님'	
05	미디실습 : 오디오 인터페이스 직접 설치	
06	보컬(목소리)의 이해, 멜리도 만들기 개인 실습	
07	3화음과 7화음, 멜로디 만들기 개인 실습	
08	발라드 어레인지 분석, 화성의 전위, 대리화음, 멜로디 만들기 개인 실습	
09	훅키, 모드 스케일, YGDP 대표곡 작곡 기초	
10	특징음, 텐션, YGDP 대표곡 작곡 기초	
11	특징음, 종지, YGDP 대표곡 기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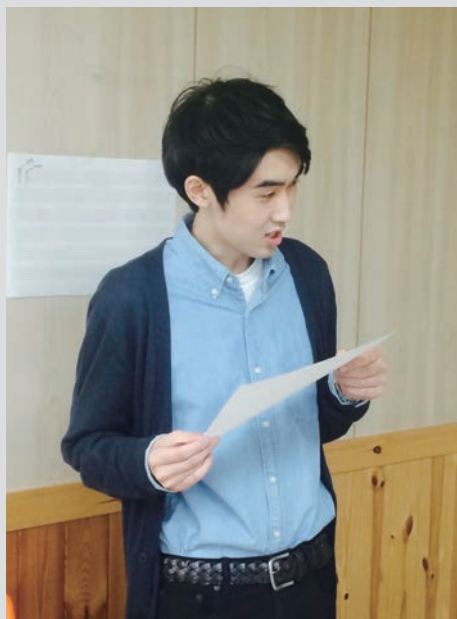
1주차

보표와 음자리표, 음이름, 음표와 쉼표, 온음과 반음, 변화표와 임시표, 박과 박자

작곡팀은 이엘샘이 작곡팀 눈높이에 맞춰 만들어주신 교재로 수업을 진행했어요. 첫 수업 시작에 앞서 소홀하게 생각하기 쉬운 기초 이론의 중요성에 대해 거듭 강조하셨는데요, 작사가나 가수 등과 협업을 하게 될 경우 사소한 실수가 큰 약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정말 자세히 살펴보니 친구들도 헷갈리던 기본 개념들이 많이 있었어요. 덕분에 첫 수업부터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답니다.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오선지도 아낌없이 쓰고, 자신 있는 사람은 앞에 나가서 A3 오선지에 그려보기도 했구요, 박자를 계산하는 시간에는 제한이가 초스피드로 정답을 외치며 다크호스를 떠올렸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개별 질문과 공부는 계속된다, 쭈욱~



2주차

음정, 음계

코드를 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공부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번 주차에서 공부하게 될 음정입니다. 중요한 내용인 만큼 연습문제 풀이에, 매 시간 복습 테스트까지..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작곡 수업이 시작되었다는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학교나 학원처럼 점수를 매기는 딱딱한 시험이 아니라, 한 명씩 오선칠판에서 나가서 문제를 풀 동안 나머지 친구들이 나서서 도와주는 훈훈한 학습의 현장입니다~

이어서 익히 알고 있는 장음계와 단음계 외에도 중세시대에 주로 사용되던 교회선법까지 공부했습니다. 교회선법은 지금도 사용되고 있기도 하고, 동시에 음악사까지 쑥~ 훑어볼 수 있어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중세시대의 음계라 모두들 많이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수업이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교회선법에 대한 자료를 찾아서 채팅방에 공유하는 열정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정말 멋지지 않나요~?



3주차

조와 조성, 이조와 전조, 화음과 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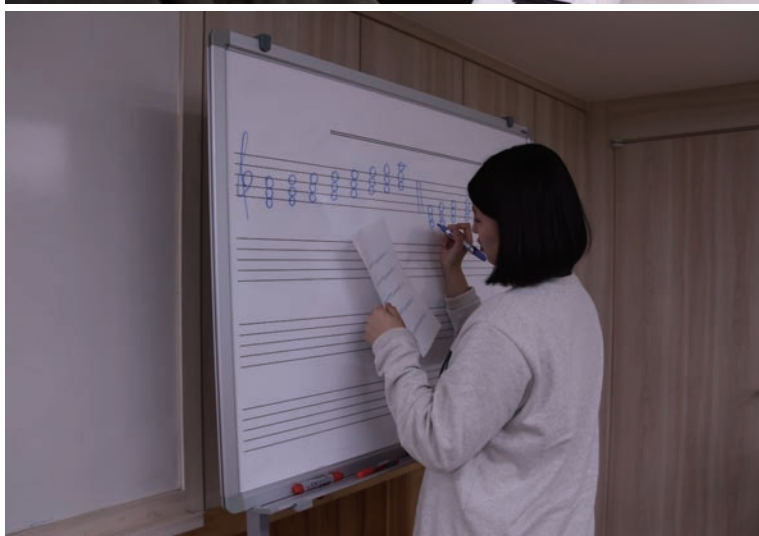
오늘 수업이 특히 기다려졌던 이유, 바로 작곡팀 수업을 도와줄 디지털 피아노가 드디어 도착했기 때문이죠!
계속된 이론 수업이 자칫 지루하고 힘들었을 텐데, 앞으로 화음과 화성을 공부하면서는 직접 소리를 들어보는
것이 확실한 이해를 도울 수 있겠죠?

수업 시간뿐만 아니라 쉬는 시간도 피아노 소리 덕에 더 활기차졌어요. 야근하는 센터 선생님들에게도 단비
같은 존재~ 특히 그동안 이론 수업을 어려워했던 막내 유진이는 자신 있는 피아노 등장에 무척 신나했어요. 절
대음감을 가려내기 위한 청음 배틀까지~

작곡팀 담당 선생님께서 자랑하고 싶은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 동안 수업 시간에 유진이에게는 선생님이
5명이었어요. 수업을 해주시는 이엘 선생님과 함께 4명의 언니오빠들까지 유진이가 진도를 놓치지 않고 따라
잡을 수 있도록 매번 열심히 도와주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 과정에서 투닥투닥, 티격태격도 많았지만 그래도
예쁜 마음만큼은 사라지지 않겠죠.







4주차

기초음악이론 복습 '오늘은 내가 선생님~'

앞선 3주에 걸쳐 모든 기초음악이론을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첫 시간에도 말했듯이, 가장 중요한 건 기본기! 3주간 배운 내용이 머리 속에 정확하게 개념이 잡히지 않으면 앞으로 진행할 내용들이 점점 어려워 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수업은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이엘 선생님이 아닌, 친구들이 직접 강의해보는 특별한 복습 시간을 가져보기로 했습니다. 저 역시 공부하면서 많이 사용해 본 방법인데, 직접 가르쳐 보는 것 만큼 이해도 잘 되고 기억에 잘 남는 법도 없죠~

세한이가 맨 처음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제일 쉬운 파트라고 좋아했는데, 막상 음악 이론의 뉘앙스 같은 너~무 당연한 내용을 설명해야 하다 보니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도 역시 작곡팀의 분위기 메이커답게 능수능란하게 친구들에게 질문을 던지며 수업 분위기를 최고로 이끌었습니다.

진이는 음정 파트를 담당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긴 통학 시간에도 불구하고 쉬는 시간마저 예복습으로 불태웠던 티가 팍팍 났던 수업이었습니다. 교재도 보지 않고 음정 관계를 술술 그려가며 완벽한 설명으로 멘토 선생님과 저까지 이해를 시켰답니다.



유진이는 음계 파트 선생님이로 나셨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선생님이 되어서도 이엘 선생님과 언니오빠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수업을 마무리했어요. 이런 게 바로 함께 공부하는 즐거움 아니겠어요?

훈이는 피아노를 적극 활용하여 눈과 귀가 즐거운 수업을 해주었습니다. 화음을 하나 하나 쳐가며 열성적으로 수업하는 모습에 모두들 반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만언니 다영이는 가장 많은 내용을 다뤘어요. 워낙 이론을 잘 알고 있던 친구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자만하는 모습 없이 꾸준히 공부하고 별도의 심화학습까지 병행하던 대견한 친구랍니다. 이런 언니를 보면서 동생들도 많이 배웠을 거예요.

4주 완성 기초음악이론, 그 특별한 복습을 마무리하면서 훈이가 소감을 남겼는데요. “시험 다 끝나고 시험 봤던 단어를 다시 외우는 기분이에요.” 그리고 이엘 선생님은 친필 편지와 함께, 앞으로 남은 기간도 초심을 잃지 않도록 각자 지원서에 작성했던 지원동기까지 예쁘게 재편집된 교재를 선물로 나누어주셨습니다. 다들 오랜만에 보는 지원동기에 손발이 오그라들어서 건딜 수 없었대요~



미디어실습

이제 선생님들의 셔터에 어느 정도 적응했는지 점차 카메라와 시선을 맞춰주는 아이들. 물론 OT때부터 변함없이 카메라만 보면 브이~ 해주는 유진이와 얼굴 가리기 바쁜 세한이도 있지만요~

- 1) 이번 주에는 가장 기대가 많았던 미디어 실습을 해볼 예정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업의 시작은 화음 복습..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겠죠?
- 2)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미디어 작업을 시작해봅시다! '미디어(MIDI: Musical Instrument Digital Interface)'란 신디사이저 등의 전자악기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표준을 의미합니다. 즉, 컴퓨터 음악 작업을 위한 것이죠. 가상악기를 다루기 위해서는 악기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조언도 잊지 않으셨답니다.

가장 먼저 소리 재생과 녹음 역할을 해주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각자 컴퓨터에 직접 연결하고 필요한 프로그램도 설치해봤습니다. 처음 보는 장비에 이리저리 살펴도 보고~ 다양한 미디어 프로그램이 있지만, YG 디렉터 프로젝트에서는 큐베이스를 사용했습니다.

트랙 만들기로 시작된 큐베이스 기본 기능 수업의 마지막은 각자 간단한 곡 만들어보기! 유진이는 기다리던 수업이었던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초롱초롱 빛나는 눈으로 모니터에 집중했습니다. 세한이와 다영이는 품만 보면 이미 작곡가~ 훈이는 종종 혼자 미디어 작업을 해보곤 하는데, 이렇게 정식으로 배워본 적은 처음이라며 하나라도 더 알아가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반면 진이는 미디어를 처음 다루어봤는데, 곧잘 따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워낙 이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였기 때문에 실제 곡 만들기에 얼마나 잘 녹여낼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6주차

보컬(목소리)의 이해, 멜로디 만들기 개인 실습

1) 작곡가라면 작사가와 마찬가지로 곡에 어울리는 가사를 떠올려볼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멜로디 만들기 과제에 앞서 보컬 목소리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 직접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형적인 발라드를 한 곡씩 골라서 직접 불러보고 그 목소리의 특징을 이엘 선생님이 설명해주셨습니다. 사실 훈이는 평소에도 보컬에 관심이 많아서 가끔 쉬는 시간이나 수업이 일찍 끝나면 이엘 선생님과 간단한 보컬 트레이닝(?)을 받곤 했었어요.

곡의 형식을 배우기 전에 처음으로 자유롭게 멜로디를 만들어보는 과제가 있었는데, 열심히 과제를 완성해 온 세한이와 훈이에게는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특히 훈이는 과제 점검 당시에 직접 가사까지 붙여서 노래를 부르면서 교회 오빠로서의 매력을 어김없이 발산했답니다~

2) 곡의 구성에 대해서는 나중에 본격적으로 배우기로 하고, 이번 주 수업은 멜로디 과제에 이어서 이엘 선생님이 무작위로 코드 반주를 해주시면 즉흥적으로 떠오르는 멜로디를 흥얼거려보는 연습을 해보았습니다. 멜로디 만들기가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이엘 선생님만의 작곡 브레인 스토밍이라고 할 수 있어요~



3화음과 7화음, 멜로디 만들기 개인 실습

이번 주 수업의 시작은 과제 점검입니다. 지난 주부터 시작된 멜로디 만들기 과제는 계속된답니다~ 세한이와 훈이의 멜로디는 여전히 코드 틀 안에 갇혀 있는 감이 있긴 하지만, 이제 얼추 노래처럼 들린다는 극찬을 받았습니다.

특히 훈이는 지난 시간 선생님의 피드백을 고치려는 노력이 확실히 보인 결과물이었습니다.

진이는 전형적인 가요의 틀을 벗어난 곡이었지만, 아직 곡의 구성은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훌륭한 시도에 박수~ 그리고 유진이는 굉장히 유진이와 잘 어울리는 동요 느낌의 상큼발랄한 멜로디를 만들어왔습니다. 심지어 소재도 순우유 호빵이랍니다. 이 곡에 영감을 준 사람은 다름 아닌 작곡팀 멘토인 정효범 선생님이라는 거~ 유진이와 멘토 선생님은 집에 가는 방향이 같아서 수업이 끝나고 항상 함께 했는데, 효범 선생님이 순우유 호빵을 그렇게 좋아했나요~?

기초실용화성학 이론 수업도 멜로디 과제와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문제풀이 양도 어마어마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과제 점검을 받을 동안 100여 개에 달하는 '다음 구성된 3화음의 명칭을 적어보시오' 문제를 기계처럼 풀어야 했습니다. 저한테는 다 같은 동그라미 세 개였는데 말이죠.

그리고 이론 수업이 다시 시작되면서 어김없이 나타난 훈훈한 작곡팀의 모습. 세한이가 훈이를 가르쳐주면 훈이가 유진이에게 가르쳐주는 이것은 진정한 팀워크~



8주차

발라드 어레인지 분석, 화성의 전위, 대리화음, 멜로디 만들기 개인 실습

앞서 멜로디 과제를 하면서 다들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이 곡의 구성이었는데요, 그래서 제대로 잡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다양한 장르 중 가장 기본이 되는 발라드를 기준으로 곡의 진행 순서를 배운 후,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대표적인 발라드 곡인 김준수의 〈너라는 시간이 흐른다〉, 성시경의 〈내게 오는 길〉, 김범수의 〈보고싶다〉의 어레인지를 직접 분석, 토론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들 열심히 자신의 생각을 발표했어요. 작곡팀은 발표하면 지지 않는답니다~ 아, 그리고 심화학습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틀에서 벗어나 진행되는 에피톤 프로젝트의 〈나는 그 사람이 아프다〉의 어레인지만큼까지 살펴보면서 발라드 어레인지를 완벽하게 마무리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 역시 빠질 수 없는 멜로디 과제 피드백 시간. 다영이는 대학 입시로 인한 부담감과 스트레스가 클 텐데도 수업이든 과제든 항상 엄청난 집중력을 보여주는 친구예요. 멜로디 루트가 확실하고, 멜로디 노트 중간중간 침표만 들어간다면 완벽할 것 같다고 조언해주셨어요.

진이는 이번 주에 배운 곡의 구성을 활용해서 좀 더 풍성한 곡을 만들어보라는 미션을 받았답니다. 특히 곡을 점점 고조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이죠.

피아노 치는 것을 좋아하는 유진이에게도 맞춤형 조언이 이어졌습니다. 코드 연주를 할 때 리듬감 있게 포인트를 줘서 연주를 하면 더 듣기 좋은 곡이 될 것 같다고 해주셨어요. 아직 곡을 완성하지 못한 유진이도 이번 주 배운 내용을 활용해서 꼭 끝까지 완성해보기로 다짐했습니다.



흠키, 모드 스케일, 대표곡 작곡 기초

이번 주에는 대중음악의 시작과 끝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무척 중요한 모드 스케일을 배워봤어요. 칠판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만 같은 집중력을 보여주며 세한이와 유진이가 문제를 풀고, 훈이 역시 그 풀이 과정을 집중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또, 스케일을 바꾼 후 흠키를 찾아보는 문제까지 풀어보았습니다.

중요한 개념인 만큼 완벽한 이해를 위해서 따로 또 같이 공부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유진이가 모르는 것을 가르쳐주는 세한이는 말할 것도 없고, 한때 음악에 살짝 발끝을 담가본 적이 있다는 멘토 효범 선생님까지 합세하여 특별 과외가 시작되었습니다. 훈이는 직접 피아노를 쳐보기도 하고, 다영이는 심화 문제 풀이까지 알아서 척척~

이제 곧 이엘 선생님 없이 결과발표회를 위한 단체곡과 개인곡 작업을 하게 될 작곡팀 친구들. 앞으로 피와 살이 될 조연을 해주셨습니다. 그 동안 작곡팀 친구들은 발라드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음악을 '편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작곡을 공부하고 배우는 지금은 음악을 편식해서는 안 된다고 진지하게 충고하셨어요. 또, 무조건 많이 듣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음악을 분석하면서 들어야 효과적인 공부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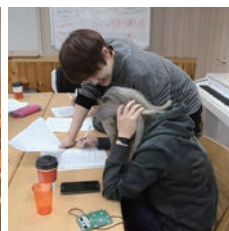




특징음, 텐션, 대표곡 작곡 기초

결과발표회를 위해서 작곡팀은 개인곡 외에도, 5명이 함께 대표곡 1곡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직 단체 곡 작업에 감이 오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엘 선생님이 역할 분담을 조금 도와주셨습니다. 각자의 장점을 살려, 다영이는 코드를 구상하고, 훈이가 주 멜로디를 구상해보기로 했습니다. 세한이는 대리코드, 분수코드 등 그 동안 배웠던 내용을 활용하여 코드와 멜로디를 변형해보기로 했고요, 마지막으로 진이가 박자를 계산하고 오선에 표기하면 유진이가 피아노 연주를 연습하는 식으로 먼저 틀을 잡아보았습니다.

그 전에 다같이 1곡의 대표곡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곡의 주제와 레퍼런스 곡이 정해져야 하겠죠? 그 동안 자신들이 해보고 싶던 음악, 좋아하던 음악이 흘러 넘치는 토론이었는데, 각자의 개성만큼이나 피 튀기는 의견 공유의 시간이었습시다. 꿈, 계절의 변화(겨울에서 봄이 되는 과정), 우울한 생일, 설렘, 로맨스 등 주제부터 너무 다양했기 때문이었죠. 유진이는 개인 멜로디 과제에서도 보여주었던 것처럼 악동뮤지션의 <소재>같이 통통 튀는 분위기의 곡을 만들어보고 싶다고 했고, 훈이는 라디의 <I'm in love>처럼 아름답고 몽환적인 예쁜 코드를 사용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또, 세한이는 태양과 어울리는 곡을 만들 테니 태양을 섭외해달라고.



11주차

특징음, 종지, 대표곡 기초

일주일에 두 번 수업으로는 부족하다는 친구들과 이엘 선생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작곡팀은 추가로 토요일 수업을 2회 더 진행했어요. 덕분에 다영이와 훈이 생일파티도 할 수 있었지요~ 그런데 너무 흥분한 나머지 초를 켜 케이크를 그대로 얹는 바람에 큰 일 날 뻔 했던 게 아직도 기억에 남네요.

무엇이든 끝맺음이 중요한 법이죠? 음악을 끝맺는 다양한 방법까지 배우니, 정말 마지막 수업이라는 게 실감 났습니다. 주말 수업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엘 선생님은 직접 피아노를 치면서 각각의 종지가 쓰인 곡을 예시로 들려주셨어요~

물론 수업을 끝으로 다시는 선생님을 만날 수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마지막 수업이었던 만큼 자유로운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론 수업에 조금 더 중점을 두게 되면서 미디 실습은 거의 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컴퓨터 음악에 대한 질문도 많았습니다. 작곡 프로그램을 다룰 때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이라든가, 가상악기를 쓸 때 악기의 소리를 구분하는 방법, 그리고 저음악기를 사용할 때 고려해야 하는 부분 등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음악 분석을 열심히 해야 한다”는 선생님의 조언을 잊지 않고, 분석을 위한 음악 감상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면 좋을지 더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기회가 되었답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의 당부는 지금까지 힘들게 배운 화성학 이론이 그냥 날아가버리지 않도록 남은 결과물 제작 기간 동안에도 서로 반복 학습을 도와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어김없이 깜짝 선물을 준비하신 이엘 선생님. 바로 YG 디렉터 프로젝트 작곡팀의 캐리커처가 담긴 머그컵이었습니대! 작곡팀의 마스크트 유진이가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온 몸으로 감사함을 표현해주었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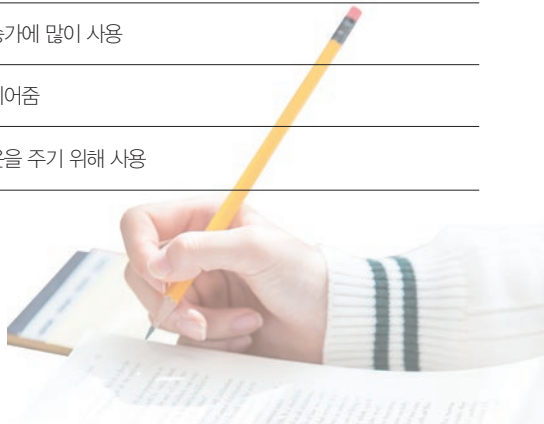


▷ 발라드 어레인지를 알아보자.

인트로(Intro)	코러스(후렴)을 변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이 외에도 악곡과 전혀 관련없는 전주를 삽입하거나, 짧은 전주 혹은 전주를 아예 생략하고 바로 시작하기도 한다.
벌스(Verse)	악기 세션이 적고 스페이스(공간)가 많은 것이 특징. 즉, 멜로디 루트가 다른 부분에 비해 적고 저음역으로 구성된다.
브릿지(Bridge)	벌스와 코러스를 연결하는 T.Bridge(Transitional Bridge)와 코러스와 코러스를 연결하는 P.Bridge(Primary Bridge)가 있다.
전주(Intertide)	전체적인 멜로디를 차용하되, 코러스와 비교해 흐름을 고려하여 구간을 설정한다.
코러스(Chorus)	작곡가와 작사가가 곡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
아웃트로(Outro)	곡의 테마를 암시해주면서 가장 신경 써서 작업하도록 한다.

▷ 음악을 끝맺는 방법(종지)

정격종지	4도-5도-1도	보통 곡을 완전히 끝마칠 때 사용
투파이브원종지	2도-5도-1도	정격종지의 변형으로, 실용음악에서 가장 중요한 종지
변격종지(아멘종지)	4도-1도	보통 찬송가에 많이 사용
반종지	5도로 마무리	음악을 이어줌
위종지(거짓종지)	6도로 마무리	보통 여운을 주기 위해 사용



정호범 멘토가 본 작곡팀 친구들



강유진

“유진이는 작곡팀의 유일한 중학생이자 가장 막내로, 이론 수업을 어려워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하지만 단 한 번의 결석도 하지 않았고, 이엘 선생님과 작곡팀 언니오빠들이 개별적으로 이론 공부를 많이 도와준 덕분에 점차 주눅들지 않고 의지를 키워나갈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멜로디 과제에 큰 흥미를 보이면서 마침내 딱 유진이다운 곡을 완성해냈죠!”



박세한

“세한이 역시 개근 멤버인데요, 첫 수업부터 질문과 대답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친구였어요. 그 동안 혼자 공부했던 이론이 빛을 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롭게 배우는 내용에 대해서도 습득이 빨랐는데, 항상 먼저 이해한 내용을 훈이나 유진이에게 가르쳐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고집이 세서 친구들과 부딪히는 경우도 있었지만, 세한이가 작곡팀의 분위기 메이커였던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유다영

“다영이는 대학생인 제가 봐도 정말 대단한 친구였어요. 고3이라 입시를 준비하는 와중에도 프로젝트를 놓치지 않으려 많은 노력을 했죠. 다른 친구들에게 맞춘 진도가 불만이었을 법도 한데, 오히려 기초를 더 단단히 하는 기회로 삼고 더 집중을 하는 모습이 대견했어요. 또, 말만니라서 항상 팀 전체를 생각하는 모습도 기억에 남네요”



이진이

“진이는 멀리서 다니기도 하고, 학교 공부를 워낙 열심히 하는 친구라 처음에는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막상 프로젝트가 시작되니 오히려 작곡 수업을 우선시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학구열 넘치게 수업에 임해주었어요. 피아노가 생긴 뒤로는 피아노 연주에도 욕심을 보이고, 밝은 분위기를 이끌어간 친구예요.”



지훈

“훈이는 유일한 남학생이었지만, 성격도 모난 곳 없고 작곡에 대한 열정이나 개인적인 경험이 많아 무리 없이 팀에 잘 어울릴 수 있었어요. 특히, 세한이랑은 티격태격하면서도, 수업시간에는 세한이와 콤비로 질문도 많이 하고 서로 배우는 게 많은 동갑 친구였던 것 같아요.”

팀별수업 〈아트디렉터팀〉

아트디렉터팀은 이문세 〈Memories〉, Adam Levine 〈Lost star〉, 종현 〈BASE〉, 아이유 〈CHAT-SHIRE〉, G-Dragon 〈One of Kind〉, 뭇(MOT) 〈비선형〉, E SENS 〈The Anecdote〉, Silk Rhodes 〈Silk Rhodes〉, 노라조 〈환골탈태〉, Beyonce 〈BEYONCE〉 총 10개의 아티스트&앨범을 재해석 하며 리디자인 하였고, YGDP 타이틀곡과 작사작곡팀 개별곡 아트디자인, 결과발표회 컨셉 및 굿즈를 제작하였습니다.

- 매주 수요일(18:30~21:00), 토요일 10:30~13:30 스스로넷 Link5(pc zone)
- 수업강사 : 타다스튜디오 김대홍 아트디렉터 & 윤연재 디자이너, 대학생멘토 김서영 & 최이슬
- 담당지도자 : 김이현
- 아트디렉터팀 : 길보민(18), 김은빈(18), 김하림(18), 류지민(16), 박예은(15), 서승연(18), 성은비(17), 신혜정(17), 원혜빈(18), 한동희(18)

• 아트디렉터팀 교육 커리큘럼

주차	강의 주제	강사
01	스튜디오 작품과 진행 아트디렉션 사례 소개 - 워밍업 : 강사 소개 및 수강생 소개 - 타다스튜디오가 진행한 아트디렉션 소개	김대홍, 윤연재
02	나에게 맞는 방향찾기 - 수작업 재료, 태블릿을 활용한 자화상 그리기	윤연재
03	-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나만의 선 느낌 찾기 - 포토샵 기본 활용에 대한 이해 - 포토샵 펜툴로 자화상 그리기 연습	김대홍
04	amesroom 커버의 페인터 아트웍 - 페인터의 브러시들을 이용한 인물 표현 - 다양한 질감 패턴들을 활용한 이미지 스타일링	김대홍
05	sound library 커버의 콜라주 효과 - 다양한 콜라주 소스 찾기 및 예제 완성	윤연재
06	각자 좋아하는 아티스트와 트랙 소개 - 디렉션 하고 싶은 아티스트 선정 - 해당 아티스트에 대한 조사 및 리서치 - 리서치를 통한 아티스트의 방향 설정	김대홍
07	앨범자켓 초안 및 앨범 아트웍 워밍업 - 앨범아트를 위한 디자인 기초지식 - 국내, 해외 레이블 아트디렉션 사례 소개	김대홍
08	Favorite Artist 앨범 아트웍 pt1 - 리서치 및 컨셉 회의 - 인쇄 및 출력물에 대한 기초지식 - 디자인 컨셉 정하고 표지 디자인 하기	김대홍
09	아티스트 콘서트 디렉팅 과정 살펴보기 - 컨셉 제안(브랜딩, 촬영컨셉), 사진 촬영, 포스터 제작 등 - 인쇄물 최종 발주 확인사항	윤연재
10	Favorite Artist 앨범 아트웍 pt2 - 개별 크리틱 - 최종 결과물 리뷰	김대홍, 윤연재

1주차

친해지길 바래, 첫 수업, 자화상 그리기

아트디렉터팀은 작사·작곡팀 보다 인원이 많아 본격적인 수업 전 토요일, '친해지길 바래'로 10명이 먼저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보드게임도 하고~ 떡볶이도 먹고요!

대홍쌤, 연재쌤과 첫 수업은 'TADA STUDIO' 작업 소개와 '사이먼디 앨범아트' 작업과정 통해 자료수집부터 완성까지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는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 시간을 가졌는데요. 포토샵으로 만든 무대에서 한 명씩 자기소개와 수업에 기대하는 점들을 얘기해봤어요. 아트팀은 첫 수업부터 앞에 나와서 발표&애기했었네요.



자기소개 후에는 타블렛&포토샵 기본 설명과 함께 토요일에 작업할 '자화상 그리기'를 과제로 내주셨어요. 포토샵을 처음 사용해본 친구들도 펜, 지우개, 레이어만 알면 그릴 수 있었던 자화상 그리기 '너 자신을 알라'. 그리고 아티팀은 앞으로 책임감 있는 장비 사용을 위해 'PC와 타블렛' 번호추첨 사다리도 뒀습니다~



2주차

자화상 그리기 피드백 & 옆모습 그리기 with 연재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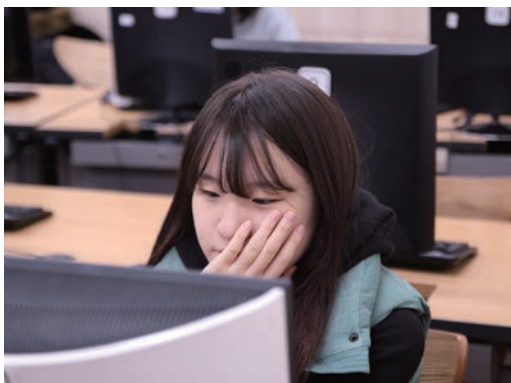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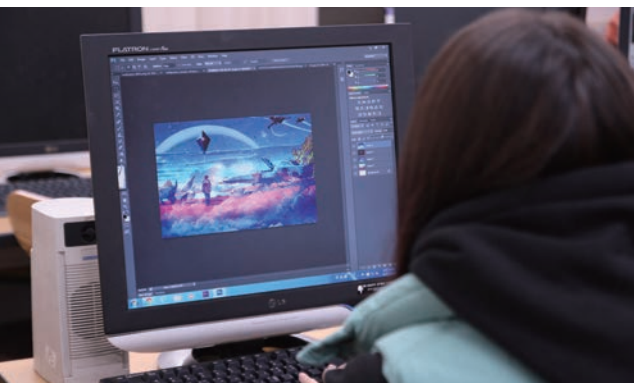
아트팀은 수요일에 쌤들이 내주신 과제를 토요일에 완성해서 YGDP 카페에 올리면, 수요일 수업 전 1명씩 피드백을 해주시는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하는데요. 개인 작업은 물론 9명의 작업물과 각기 다른 피드백을 들으며 열린 수업을 한답니다. 첫 과제를 개성 넘치게 잘해서 쌤들이 굉장히 놀라셨다고 해요. 첫 수업부터 폭풍! 칭찬.

포토샵 작업을 위한 사이즈, 해상도 등 환경설정과 빛의 색상 RGB, 인쇄 색상 CMYK의 차이점, 스탠실&로토스 코프 기법에 대한 소개와 작업 방법을 알려주셔서 기법을 활용한 옆모습 그리기를 과제로 했습니다.



옆모습 그림 피드백 & 포토샵 효과 설명 & 상반된 이미지 합성 with 대홍쌤

본격적인 수업 전, 타다스튜디오 쌤들이 작업하고 있거나 함께 일했던 아티스트와의 일화를 얘기해주시는데요, 오늘은 JYP와 같이 일했던 작품들과 작업과정을 설명해주셨어요. 시작부터 아이들 집중력 UPUP. 디자인을 하려면 영어공부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같은 디자인 툴들이 영어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아는 만큼 보인다' 영어사전을 활용해 포토샵 용어를 많이 찾아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르더라도 이것저것 눌러보며 효과가 어떻게 바뀌는지 직접 확인해 보는 것도 굿~ 이번주 과제는 이것저것 누르며 알아본 포토샵 블렌딩, 퉁퉁 효과를 확인하며 <2장 이상의 상반된 이미지 합성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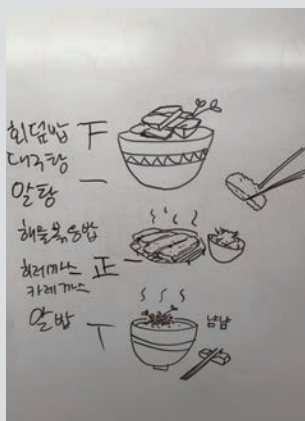


4주차

이미지 합성 피드백 & 페인터로 자화상 그리기 with 대홍쌤

요즘 한창 작업 중인 ZICO 앨범아트 작업 과정과 아이디어, 수정 시안을 보여주시며 이번주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궁금한게 있으면 먼저 질문을 하기 시작한 아이들!

오늘은 새로운 디자인 툴을 배워볼 건데요, 포토샵과 비슷하지만 실제 붓과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는 듯한 '페인터'입니다. '페인터'는 실제 화가, 디자이너들이 개발에 참여해서 더욱 사실적인 묘사가 가능하다고 해요~ 이번주 과제는 <페인터에서 마음에 드는 붓으로 자화상 그리기>인데 선생님들을 그린 아이들도 있었어요, 모두 처음 사용해본 페인터인지라 서로 도와가며 과제 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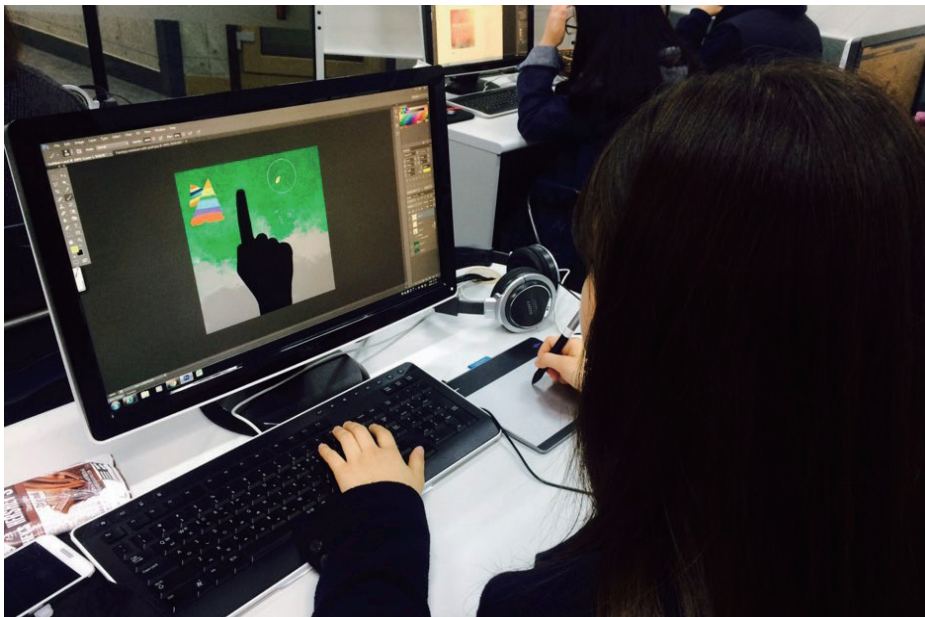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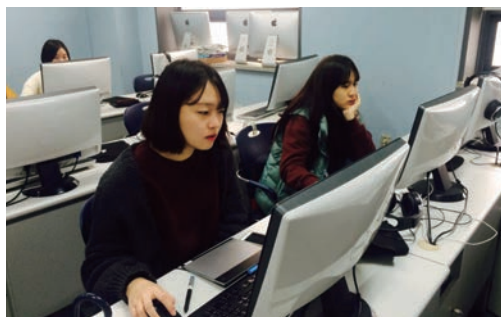
페인터 자화상 피드백 & '손' 이미지와 콜라주 with 연재쌤

센터 공사로 인해 아티팀은 2주 간 '미디어엑트'에서 수업을 진행하게 됐어요. 이번주 과제도 특징과 디테일을 잘 살렸다는 칭찬으로 시작! 여러 작가들의 작품을 보여주시며 다양한 그림을 스크랩하는 것도 좋지만 작가 한명씩 조사해보며 스타일을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조언을 받아 아티팀은 수시로 작가 조사와 작품을 카페에서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주는 슈프림팀 '왜' 앨범아트에서 사용된 손 이미지+콜라주 기법을 배웠어요. 작업팀! 구글에서는 소스 이미지, 네이버에서는 브러쉬나 포토샵 유용 팁을 찾아보면 좋겠더라고요. 이 때, 영어 단어로 검색하면 더 많이 나온다는 점~ texture, brush~

'손' 이미지를 중심으로 좋아하는 요소들을 배치하는 콜라주가 이번주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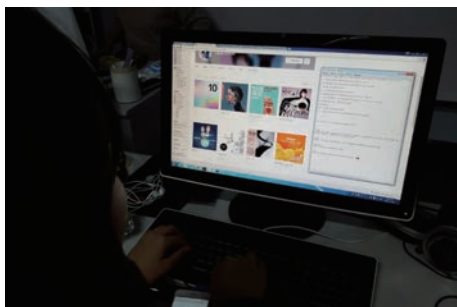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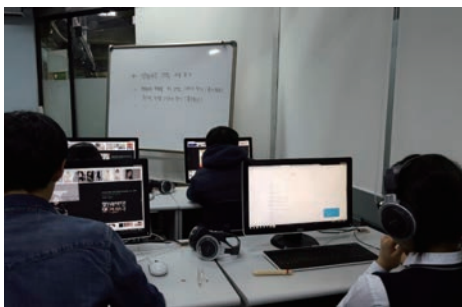




앨범아트 리디자인 기획안 준비 & 발표(멘붕의 시작) with 대홍쌤

아트디렉터팀의 최종 교육 목표는 <앨범아트 리디자인>입니다. 기존 발매된 앨범들 중 1개를 선택해 자신만의 컨셉으로 리디자인 하는 건데요, 실제 앨범아트 작업 과정처럼 우리 아트팀도 기획-자료 수집-피드백-작업(반복) 과정을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기획안 발표를 위해 아티스트&앨범을 선택하고, 참고할 이미지들을 찾아 폴더별로 정리하고, 1장짜리 기획안을 만들었습니다. 긴장은 어디로 갔는지 1명씩 무사히 발표 후에는 대홍쌤의 폭~풍 피드백과 조언으로 구체적인 작업방향을 잡을 수 있었어요!



7주차

대홍쌤 자료폴더 대공개 & 개인피드백 시작 with 대홍쌤

요즘은 음악을 스트리밍이나 유튜브로 접하기 때문에 CD를 실제로 볼 기회가 많이 없었다고 해요. 볼 기회가 없었다고 해요. 마침 센터에 응답하라 2000을 외칠 정도로 귀한 CD들이 많아서 수업 전, 재미나게 직관타임 ~ 이 흐름을 이어 본격적인 수업 때는 대홍쌤이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모아둔 이미지 자료를 아낌없이 공개해 주셨어요! 시공간을 초월한 간접경험에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초집중한 아트팀. (모아둔 자료는 폴더정리를 잘 해야 필요할 때 쓱쓱 골라 사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지난주에 이어 기획안을 구체화 시키는 1:1 피드백 시작 ~~ 맨 마지막 순서였던 혜정아와 대홍쌤은 진지한 진로상담까지 하느라 중간에 끊지 않았으면 막차를 놓칠 뻔 했습니다.

아트디렉터팀 <앨범 리디자인 리스트>

이름	아티스트*앨범	이름	아티스트*앨범
길보민	이문세 <Memories>	서승연	못(MOT) <비선형>
김은빈	Adam Levine <Lost star>	성은비	E SENS <The Anecdote>
김하림	종현 <BASE>	신혜정	Silk Rhodes <Silk Rhodes>
류지민	아이유 <CHAT-SHIRE>	원혜빈	노라조 <한글탈테>
박예은	G-DRAGON <One of Kind>	한동희	Beyonce <BEYONCE>



출력물 교육 & 개인피드백 with 대홍쌤, 무주YG재단 희태쌤, 산희쌤

지난주 한국 가요계 20년을 알 수 있었던 CD 작곡타임에 이어 타다스튜디오 쌤들이 작업한 CD들과 재미난 구성의 CD를 직접 갖고 오신 대홍쌤! CD마다 다른 구성 설명과 함께 아이들은 직접 만져보고 하나씩 살펴볼 수 있었어요. 출력물 교육 후에는 일주일 사이 보완&발진된 개인 작업 피드백과 작업하며 어려웠던 점을 물어 보며 1:1 피드백. (아트팀을 응원하기 위해 무주YG재단 희태쌤과 산희쌤이 깜짝 방문하셨어요. 너무 반갑지만 낮..가리는 아트팀이라 조금은 부끄)



9주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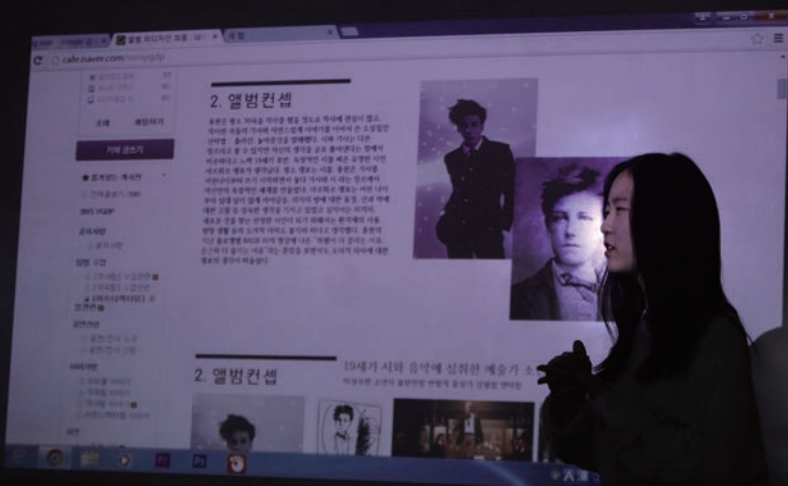
콘서트 준비과정 & 피드백 with 연재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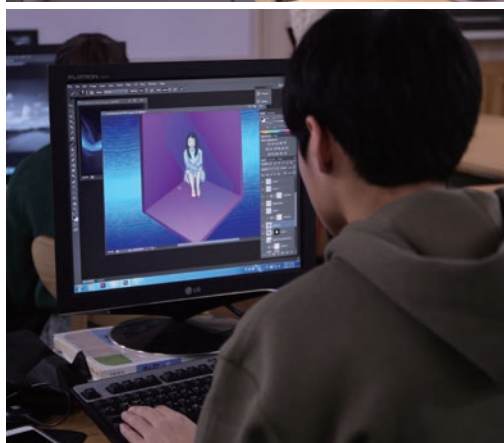
오랜만에 오신 연재쌤♥ 앨범리디자인 작업 시작 후에는 처음이라 1명씩 꼼꼼하게 아이디어와 피드백을 주셨어요. 피드백 후에는 요즘 작업중이신 <세븐틴 콘서트 준비과정>을 보여주셨는데요. 아트디렉터는 앨범아트 뿐만 아니라 공연, 콘서트에도 참여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콘서트 로고부터 포스터, 굿즈 시안 등을 보며 우리 아트팀은 알고 있었을까요? 결과발표회를 위한 공연기획, 굿즈제작, 앨범아트팀 유닛 결성은 이미 계획됐었다는 걸♡



앨범리디자인 발표 & 종강 $\pi\pi$ with 대홍쌤, 연재쌤

끝이 없을 것 같았던 아트팀 수업 마지막 날. 앨범리디자인 발표를 위해 마지막까지 수정하고 쌤들의 도움도 받으며 마무리. 아트팀은 첫 수업 때도 교실 앞에 나와 발표 같은 자기소개를 했었는데요. (예견된 걸까요) 참 한결같이 마지막 날에도 한명씩 완성작을 발표했습니다. 작업과정을 모두 함께했지만 막상 발표하려니 떨려하면서도 당차게 프레젠테이션을 해낸 아트팀♥♥ 발표 후에는 서로 질문도 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 받으며 함께 완성했어요. 수업은 오늘이 마지막이지만 그 동안 못나는 이야기도 편하게 나누며 조촐한 종강파티 ~





김서영&최이슬 멘토가 본 YGDP 아트디렉터팀



길보민

“보민이는 작업을 할 때 방향을 잡기까지 고민하는 시간이 길었던 거 같아요. 포토샵에 익숙해지면서 점차 작업 속도도 빨라졌지만 꼼꼼하게 작업하려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사교성도 좋아서 두루두루 잘 챙기고 카톡방에서도 애정 담긴 응원을 많이 해줘서 아트팀이 작업을 완성할 수 있었던 거 같아요.”



김은빈

“은빈이는 조용한 편이지만 자기 생각을 표현할 때는 적극적이었어요. 발표할 때도 부끄러워 했지만 조곤조곤 잘했구요! 포토샵을 처음 다뤄 초반에는 어려워했지만 금방 적응하며 진도도 잘 따라가고, 팀작업 할 땐 결정담당처럼 결단력이 있기도 했죠.”



김하림

“하림이는 수업 준비도 열심히 해오고, 안경을 쓰고 온 날은 코에 살짝 걸치고 작업하던 모습이 인상 깊어요. 작업할 땐 엄청난 집중력으로 주어진 시간동안 완성하더라구요. 혜정이랑 관심사가 맞아서 둘이 오순도순 얘기할 때는 한 없이 해맑은 미소천사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류지민

“지민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많이 밝아졌어요. 강사 쌤들한테 그림에 대한 칭찬도 많이 받고 센터 분위기와 아트팀과 친해지면서 긍정적으로 변한 거 같아요. 또 밥 먹을 때 다른 친구들과 속도를 맞춰가려는 모습이 기특했어요. 작업할 때는 마음에 안들면 과감하게 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완벽주의자! 이미지 편집보다는 직접 그리는 걸 더 좋아하고 잘하는 거 같아요.”



박예은

“예은이는 혼자서 포토샵 작업을 해봤어서 수업시간엔 똘똘똘 잘 듣고, 과제 할 때는 막힘없이 자기 생각을 표현했어요. 앨범리디자인 작업할 때는 앨범 커버 뿐만 아니라 CD 전체적인 기획까지 하는 능력자! 밝고 귀여운 불임성 있는 성격이라 지민이, 승연이랑 팀을 이루고서는 박인턴의 귀여움이 더 빛을 발했습니다.”



서승연

“승연이는 디자인고를 다니고 있어서 어려움 없이 진도를 잘 따라갔어요. 프로젝트를 통해 기획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작업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을 거예요. 평소에 이야기 잘하고 친구들과 동생들을 살뜰히 잘 챙겼던 서부장~~”



성은비

“은비는 늘 웃고 해맑았어요. 수업 초반엔 많이 어려워 했지만 실력이 늘면서 의지도 강해졌어요. 앨범리디자인 작업 할 때는 생각이 명확하고, 방향도 뚜렷해서 몇 주 동안 이션스 옷 입히는 것에도 포기하지 않고 잘 해낼 수 있었던 거 같아요. 팀별 작업을 할 때 의견도 많이 제시하고, 늦게까지 남아서 작업할 때도 여전히 웃음을 잃지 않았어요.”



신혜정

“혜정이는 생각이 깊고 작업할 때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표현하고 싶은게 많았던 거 같아요. 이미지 편집보다는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해서 포토샵 보다는 페인터가 잘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질문하는 걸 두려워 하지 않아서 수업 때는 쌤들한테 질문도 많이 하고, 평상 시에는 한 주간의 근황 대화를 열어주곤 했죠.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의견 주고 받는 걸 좋아했어요.”



원헤빈

“헤빈이도 디자인고를 다니고 있어서 수업에 일러스트를 더 하는 거 같아요. 과제할 때 다른 친구들이 어려워 하는 점이 있으면 조용히 도움을 주곤 했어요. 먼 거리를 다니느라 힘들었을텐데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마운 헤빈이”



한동희

“동희는 언제나 약속시간보다 일찍 왔던 성실맨이에요. 그림보다는 이미지 편집을 좋아하고 손도 빨라서 작업시간 내에 여러개를 완성하곤 했죠. 특히 프로젝트 초반부터 진학과 진로에 깊은 고민을 했어서 많은 이야기를 주고 받았어요. 결과 발표회 준비할 때는 일찍 와서 마지막까지 작업하느라 공장장으로 불렸어요.”

YG 사옥 투어

(2015.12.08, YG엔터테인먼트 사옥)

프로젝트를 절반 정도 남겨놓고 우리 친구들의 사기 충전을 위해 굉장히 특별한 곳에 다녀왔습니다! YG사옥투어는 참가자 사전 욕구조사에서도 팀별 교육과 함께 기대감이 가장 높았던 활동이었습니다. 시험기간이었음에도 지각생, 결석생도 없었다니까요~

항상 센터에서 수업만 하다가 이렇게 다같이 밖에서 만나니 마치 소풍을 나온 기분이었습니다. YG사옥에 도착하자, 벌써 무주YG재단 김희태 선생님, 강산희 대리님이 친구들을 맞이하러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지하로 내려가자마자 보이는 곳은 바로 방송에서 보던 그 유명한 YG사내식당이었어요. 여기에서 무주YG재단 이효정 사무국장님의 인사말씀과 재단에 대한 소개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회사는 특성상 외부인에게 내부를 공개하는 일이 거의 없다고 하는데, YG 디렉터 프로젝트 친구들이 이번 견학을 좋은 기회로 삼아주었으면 좋겠어요.



실제 YG엔터테인먼트 아티스트들이 녹음하는 녹음실의 내부를 구경하고, 녹음실을 담당하는 엔지니어 분과 간단하게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수 있었어요. 쪽~ 둘러보고 마지막으로 들린 곳은 YG엔터테인먼트 소속 아티스트들의 땀과 숨결이 그대로 남아있는 체력단련실! 이곳은 '황사부' 황상찬 트레이너께서 직접 소개해주셨습니다.



투어가 끝나고 그 유명한 YG식당 밥을 맛 보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다들 밥 먹기보다 인증사진 찍느라 바빠 보였습니다. 친구들 말에 의하면 '되게 맛있는 급식'을 먹는 기분이었다고 해요. 특히 고기가 어찌나 부드러웠는지~ 거기에다 기념선물도 잊지 않고 챙겨주신 선생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다들 YG사옥을 직접 다녀오니, '나중에 꼭 이런 곳에서 일해야지!' 하는 마음이 더 불타올랐다고 하더라고요.



YG 작곡가 특강

(2016.01.30. 스스로넷 1층)

결과발표회 준비로 한창인 YG 디렉터 프로젝트 친구들을 위해서 YG 대표 인하우스 작곡가, 강욱진 작곡가께서 강연을 오셨습니다. YG는 우리나라에 거의 없는 인하우스 작곡가 시스템을 갖춘 회사로, 작곡가 양성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강욱진 작곡가는 함승헌 작곡가와 공동작업으로 유명한데, 박병의 'Ego'와 '결국', 승리의 미니앨범 [Let's Talk About Love], 최근에는 위너의 앨범과 [Mix&Match] 등의 앨범에도 참여하셨습니다.

평소 만나기 힘든 만큼 실제로 친구들이 궁금해 하는 점을 꼭 집어 알려주기 위해서 거의 대부분이 친구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모두가 궁금해 했던 음악을 시작한 계기와 YG엔터테인먼트 인하우스 작곡가로 입사를 하게 된 과정을 정말 자세하게 설명해주셨어요. 그리고 작사와 아트디렉팅에 관해서는 협업자의 입장에서 설명해주셔서 평소와는 다른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작곡팀뿐만 아니라 작사팀, 아트디렉터팀 모두에게 일관되게 강조하신 것은 꾸준한 태도로 노력하는 것과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는 것이었어요. 또, 영감이 떠오르지 않을 때 개인적으로 어떻게 극복하시는지도 알려주셨는데, 모두에게 도움 될 조언이었답니다.



결과발표회 준비

(2016.01~02)

결과발표회 전까지 남은 1월과 2월은 모든 팀이 수업강사님 없이 결과물 제작에 돌입했습니다. 대표곡 1곡은 작곡팀 작곡, 작사팀 가사, 아트디렉터팀 앨범아트, 그야말로 20명 전체의 합작품입니다. 그 외에 작곡팀과 작사팀은 개인곡을 한 곡씩 더 작업했고, 아트디렉터팀은 수업시간에 대홍&연재쌤이 자주 말씀해주셨던 콘서트, 앨범에서 아트디렉터의 역할과 진행 과정을 참고하여 앨범아트, 굿즈제작, 공연기획 팀이 만들어졌습니다.



YGDP 대표곡 작사 & 작곡중

체계적으로 곡을 만들어보는 경험이 처음이었던 작곡팀에게 다같이 한 곡의 팀곡을 만드는 게 쉽지 않았어요. 모두의 취향과 개성에 맞는 곡의 주제나 느낌을 찾기 힘들었고, 한 곡을 만들기 위해서 서로가 어떠한 역할을 맡아야 하는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작사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 동안 2~3명씩 짝을 지어 가사 작업을 해보기는 했지만 다같이 가사를 써보기는 작사팀도 처음이었죠. 작사팀은 회의를 거쳐 굉장히 구체적인 스토리를 만든 후 각자 써온 가사를 취합, 발전시키는 식으로 진행했어요.

이 과정에서 작곡과 작사가 분리되어 진행되기 보다는, 팀 간 의견 교환을 통해서 곡의 멜로디가 변형되기도 하고 가사의 느낌이 달라지기도 했어요.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협업하고 있던 YGDP. 잊지마. 쉽지 않았지만 그렇기에 해낼 수 있었음을♡



이엘 강사님의 마법 같은 편곡 후 단체곡 〈PANORAMA〉가 탄생했습니다. 녹음에 앞서 곡을 쓴 작곡팀과 가사를 쓴 작사팀이 노래를 불러주실 보컬 이수희님과 녹음을 봐주실 이엘 강사님께 직접 곡에 대해 설명을 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녹음은 스스로넷 3층 녹음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YG 엔터테인먼트 강규용님께서 믹싱&마스터링 후반작업을 해주시면서 〈PANORAMA〉는 준비 끝!



결과발표회 컨셉회의

우리만의 결과발표회를 만들기 위해 컨셉부터 구성까지 YGDP의 손으로 준비했습니다. 아트디렉터팀이 주축이 돼서 컨셉 기획, 로고제작, 발표회에 참석해주실 분들에게 드릴 기념품, 단체복 제작까지!

컨셉발표를 위해 2~3가지 버전 기획안을 만들고, 뿐만 아니라 작사작곡팀이 만든 〈PANORAMA〉 아트웍 시안 발표도 하고, 곡에 대한 설명을 더 듣기도 했어요.

또 우리 긴급사안으로 YGDP의 자치회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성숙한 토론자세와 배려심으로 모두 훈훈하고 감동적으로 의견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멋정~

결과발표회 밑그림이 그려지자 YGDP는 한 번 모였다 하면 밤 10시는 기본이었을 정도로 단체작업에, 개인작업까지 정말 열심히 해주었습니다.



졸업앨범 촬영

(2016.02. 스스로넷 5층 사진스튜디오)

결과발표회 컨셉이 '졸업식'으로 결정되면서, 졸업 사진을 마지막으로 결과발표회 준비를 마쳤어요. 이 때 만큼 즐겁게 놀았던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좋은 조명과 다양한 소품, 좋은 카메라로 거의 사진 300장을 마음껏 찍어가며 추억도 쌓고 인생샷도 남기는 시간이었습니다.



결과 발표회 & 수료식

(2016.02.20. 스스로넷 1층 Link1)

20명의 YGDP들이 그 동안 열심히 배우고, 힘들게 준비한 결과물을 드디어 발표합니다!

사회 경험이 많은 수정이와 경험이 별로 없는 은비가 함께 결과발표회 사회를 맡아 주었는데요, 덕분에 노련미와 풋풋함이 함께 했던 훌륭한 사회였습니다. 로고 역시 동회를 주축으로 한 굿즈제작팀에서 직접 만들었는데, 이 로고를 바탕으로 다양한 홍보물과 기념물이 만들어졌어요. 특히 스티커가 굉장한 반응을 일으켰어요!

YG 디렉터 프로젝트 1기 결과발표회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졸업식을 컨셉으로 종소리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그 동안 수업을 했던 공간을 전시실로 꾸며 다양한 작업물을 함께 전시하기도 했구요.



1부는 작곡팀과 작사팀의 개인곡 공연으로 꽉꽉 채웠습니다. 몇몇은 직접 부르기도 하고, 섭외한 보컬들이 불러주시기도 했어요. 작곡팀은 작곡 외에도 작사까지 직접 했습니다. 첫 무대로 영화 <어바웃타임>을 편집한 영상에, 여자 프로포즈 송인 'Be My'가 세한이 목소리로 흘러나오는데, 너무 잘 어울리는 거 있죠? 훈이의 자작곡 'Take It Slow'도 친구의 피쳐링을 받아서 훈이가 직접 불렀어요. 특히, 훈이는 노래에 맞는 뮤직비디오를 직접 촬영해오는 열정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영이의 자작곡 'Manic'과 유진이의 자작곡 '순우유 호빵'은 밴드 '레인그린'이 멋진 라이브 공연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영이는 작곡팀의 실력자답게 완벽한 커플저격송을 만들어주었고, 유진이는 통통 튀는 곡의 분위기와 달리 깊은 메시지를 담은 곡이었어요.

2부에는 아트디렉터팀의 앨범 리디자인 작업물을 멋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결과발표회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YG 디렉터 프로젝트 대표곡 'PANORAMA'의 공연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보컬 이수희 님이 직접 불러주셨습니다.



작사팀은 기존 곡에 가사를 새로 붙여서 발표했어요. 관객들이 작사팀의 가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무대 위 스크린에 예쁘게 가사도 띄워졌답니다. 뮤지컬배우 김지경님이 세희와 승엽이가 붙인 새로운 가사로 노래를 불러주셨어요. 세희는 넬의 '지구가 태양을 네 번'이라는 곡에 '고장난 시곗바늘'이라는 제목을 붙여 개사해주었고, 승엽이는 크러쉬의 '가끔'을 원곡으로 하여 '넬'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랩 파트를 구성했어요. 그래서 랩 파트는 승엽이가, 보컬 파트는 김지경 님이 함께 호흡을 맞춰 무대를 꾸며주었어요. 승엽이는 촬영용 카메라를 의식하며 센스 있는 무대매너까지 보여주었답니다~ 연우는 Jessie J의 'Flashlight'를 'Moonlight'로 개사해서 직접 노래까지 완벽하게 불러주었어요. 가사 작업에 노래 연습까지, 작사팀이 1월 한 달 동안 센터에 하루 종일 남아있던 이유가 있죠? 그리고 작사팀의 영원한 콤비 수정이와 민주는 함께 두 곡을 작사하고 직접 공연했어요. Zion.T의 '양화대교'를 부모님께 바치는 노래 '당신의 시간'으로, 키썸의 'Like U'은 센스 넘치는 랩이 돋보이는 '나는 한 개도 안 슬프다'로 재탄생시켰어요. 평소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던 민주는 처음 써보는 포토샵으로 앨범아트를 그려내서 웹툰 작가로의 진로를 진지하게 추천받기도 했어요. 그리고 아트디렉터팀 친구들은 바쁜 와중에도 작곡팀과 작사팀의 자작곡 앨범아트까지 만들어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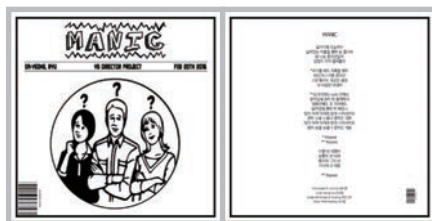
이렇게 결과발표회와 수료식까지 마치면서 YG 디렉터 프로젝트 1기는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MT, 동아리 등 계속해서 모임을 이어나갈 테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말아요 우리~ 더불어 결과발표회를 마치면서 많은 영상 제작과 무대 연출을 도와주신 스스로넷 선생님들께도 정말 감사합니다.



YGDP 자작곡&리디자인 앨범커버



박세한 'be my'



유다영 'MANIC'



강유진 '순우유호빵'



지훈 'take it slow'



김세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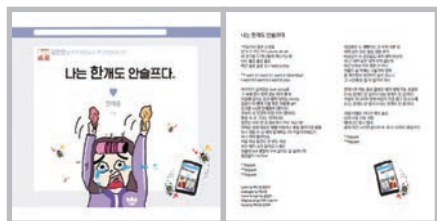
남승엽 '널'



정연우 'moonlight'



민주수정 '당신의 시간'



민주수정 '나는 한개도 안슬프다'



YGDP 대표곡 'PANORAMA'



김하림



김은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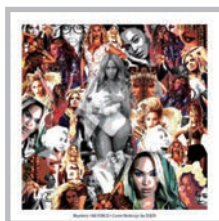
원혜빈



성은비



박예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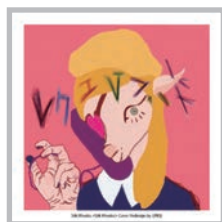
한동희



류지민



길보민



신혜정



서승연

개인별 문화공연 관람 지원

(2015.11~2016.02)

프로젝트 기간 중 팀별 수업과 공동활동 외에 개인별로 문화공연 관람 지원을 함께 진행했어요. wow 팀교육 틈틈이 본인 진로와 연관되거나 꼭 가고 싶었던 공연·전시 정보를 직접 찾아보고 1인당 지원금액 내에서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관람 전 '보고 싶은 전시/공연 소개, 나만의 관람포인트 만들기' 등 계획서를 제출하고, 공연 관람 후에는 '인증사진과 계획했던 관람포인트를 중심으로 관람후기'가 담긴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정연우(작사팀, 뮤지컬 레미제라블)

"작사를 할 때 제일 힘든 부분이 사실 영어로 되어 있는 외국곡의 원작가사를 살려 한국어로 바꾸는 일이다. 한 파트에서 가사를 지루하지 않게 하기 위해 적절히 끊는 법도 알아야 하고 특히 내가 가장 지적을 많이 받는 부분인 작사를 할 때 부르기 쉬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인데(예를 들어 환원피스의 흰 발음이 힘들어 하얀원피스로 바꾸는 것. 하지만 바꾸면 4글자가 5글자가 되어 자수가 맞지 않아 다시 고쳐야 한다)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내었는지 궁금하다. 뮤지컬 대사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노래로만 이끌어 가는 송스루도 기대된다." - *관람계획서 중*

한동희(아트디렉터팀, Girls' Generation 4th TOUR - Phantasia in SEOUL)

"콘서트를 하기 전에 제일 궁금했던 점은 무대가 어떻게 설치되었으며 팜플렛, 굿즈 등 다양한 디자인들을 어떤 식으로 해놓을지 궁금하였습니다. 특히 콘서트 중간 영상을 보여주는데 다양한 촬영구도로 이뤄져서 보는 재미가 있었고 홀로그램을 이용하여 콘서트에 더욱 활기를 불어 넣었습니다. 굿즈나 팜플렛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팬덤이 크다보니가 가수의 사진을 이용한 굿즈가 많았습니다. 지난 수업 때 윤연재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콘서트 관련 디자인들을 보여주시면서 가수 쪽 디자인을 맡게 된다면 콘서트에서 쓰이는 컨셉 혹은 디자인도 하게 된다고 하셨는데 저도 나중에 아트디렉터가 되면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겠구나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대가 설치된 것을 자세히 본 게 가장 큰 기억에 남는데 학교에서 귀로 듣는 것으로 끝났지만 두 눈으로 직접 보게 되어서 무대디자인에 대해서 색다른 매력도 느꼈습니다. 안에 좌석도 생각보다 괜찮아서 아주 보람찼던 콘서트였습니다." - *관람보고서 중*

지훈(작곡팀, 2015 아메바후드 콘서트)

"이번 콘서트가 감회가 새로웠던 가장 큰 이유는 이런 기회가 처음으로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다. 그 만큼 열심히 관람에 참여하고 귀 기울이고 눈을 크게 떠서 봤다. 곡을 만들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투자 했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어떤 노래든 그냥 지나쳐가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많은 랩/힙합 아티스트들이 나왔는데 그들은 무언가 엔진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이번 아메바컬처 콘서트에서 배운점이 너무나 많다. 플래닛쉬버라는 그룹을 처음 알게 되었는데 그들이 하고 있는 음악이 미래에 내가 하고 싶은 음악이랑 거의 근접했다. 도대체 그런 사운드는 어떻게 나올까. 또한 플래닛쉬버의 멤버 중 필터는 많은 가수들의 프로듀서로 일하는데 피아노를 굉장히 잘 친다. 그 모습을 보고 나도 피아노를 잘 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집에 돌아와서 나는 어떻게 랩을 할지, 음악, 사운드, 동선과 무대매너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많이 알아보기 위해 연구를 했고 연습에 임했다. 이번 아메바후드 콘서트는 내 인생 최고의 생일 선물이었다." - *관람 보고서 중*

일	명	과	사	이	종	정	연	주
전시/공연	명				통계청/데이터저장			
전시/공연	금액			113,000원			/	99,000원
전시/공연	장소				광주스퀘어 상설전시장			
전시/공연	일시		2015년	12월	9일	15:00 ~		18:00

● 보고는 원시/광견을 나뉘며 스타일로 자유롭게 소개해주세요.

최초로 최후의 소신을 원자로로 쓴 '비밀지침'은 30년이 지난 지금의 '결' 세제까지 사할왕으로 주욱같은 확립으로 그 충실성을 다한 필자들이다. 무지한도 순신이 없는 사람들도 그 세를 원자로 보지않아 열등을 보지 않는 사람들도 노력을 원자로 '이-이' 작'하면서 알아왔다. 필자들은 궁극적으로 원자로를 알기보다 그것도 안되면 주욱하는 일이 있을것이다. 더 늦기전에 '결'을 공부하면 어떻게 '가치'를 얻을 수 있는지를 알고 있다.

원자로 '결'을, 원자로 '결'

[illegible]

2. 두가지에서 대사가없는 경우부터 알아서 노래모양 이합에 가는 송스문은 어떤 느낌인가?
아직 전달전인 내 입장에서는 모든 대사를 지은후부터 알아서 노래모양 판단된 곡을 찾
기 힘들것 같다. 꼭지반 전체 송거가 많을때나 어떻게 소환했는지 궁금하다.

3. 사할하는 비리왕스를 코제프의 책략보통과 그런 그를 처음으로 잊기때 속에서 온과 노래를 부르는 자신의 힘으로 귀환 그를 사할왕과 대면과 그 사할은 제단은 관음현기거늘보이는, 권력제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적인 애보년의 <en my own>.

표스 1레이저는 고정되어 있어, 부속된 경우에는 열기 쉬운 기판

★두 번 확인! 저원이 자금을 위한 계좌정보를 아래에 정확하게 작성해주세요.

통계신문도 함께 가져가기 원하십니까?

배우자명 | 성명 | (본인 지체가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 지명 이)

모호자 제해 등을 시,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illegible]

1. 1990년 1월 1일 현재 100만원의 원금에 대해 연 10%의 이자율로 복리 계산한 금액은 얼마인가?
 2. 1990년 1월 1일 현재 100만원의 원금에 대해 연 10%의 이자율로 단리 계산한 금액은 얼마인가?
 3. 1990년 1월 1일 현재 100만원의 원금에 대해 연 10%의 이자율로 복리 계산한 금액은 얼마인가?
 4. 1990년 1월 1일 현재 100만원의 원금에 대해 연 10%의 이자율로 단리 계산한 금액은 얼마인가?
 5. 1990년 1월 1일 현재 100만원의 원금에 대해 연 10%의 이자율로 복리 계산한 금액은 얼마인가?
 6. 1990년 1월 1일 현재 100만원의 원금에 대해 연 10%의 이자율로 단리 계산한 금액은 얼마인가?
 7. 1990년 1월 1일 현재 100만원의 원금에 대해 연 10%의 이자율로 복리 계산한 금액은 얼마인가?
 8. 1990년 1월 1일 현재 100만원의 원금에 대해 연 10%의 이자율로 단리 계산한 금액은 얼마인가?
 9. 1990년 1월 1일 현재 100만원의 원금에 대해 연 10%의 이자율로 복리 계산한 금액은 얼마인가?
 10. 1990년 1월 1일 현재 100만원의 원금에 대해 연 10%의 이자율로 단리 계산한 금액은 얼마인가?

일	이르다	이름	정원
일	Girls' Generation 4th TOUR - Phantasia in SEOUL	110,000원	
일	유치원	유치원	20:00

전시/공연 공백					
전시/공연 장소	2015년	11월	21일	18:00	
전시/공연 일시	전시/공연 일시 (2월 예정)				

• 내 모습에 불어난 인물은 경구가 많으며, 내부 촬영이 안 되는 공간에 역간의 촬영을 통해 (관람포인트를 알 수 있는 사안에 역간의 촬영을 통해

대부분 서서

...를 통해 관할 전 직책 계획했던 관할

• **관람 후기**
여러 전시공간을 관람하면서 느낀 점과 개인적으로
근거하여 최대한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작성해주세요.

[illegible]

무엇보다 무대가 실재하는 공간이 아니라, 관객의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공간이다. 관객의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공간이 아니라, 관객의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공간이다.

화석도 생각보다...

이와 같은 계 모습이 나온 사진은

YG 아티스트(위너) 콘서트 단체 관람

(2016.03.13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2월, 눈물의 결과발표회를 끝으로 공식활동은 끝났지만 급변개급 만남이 이뤄졌습니다!!! 무주YG재단 희태쌤의 연락으로 YGDP 다 모여! 무려!! 위너 콘서트 관람이다!!!! ㄴ우로와#%*^#^%# 단톡방 매우 난리, 이런 난리를 본적이 없을 정도였어요. 매주 만나고 또 결과발표회를 준비하며 매일봤던 우리들인지라 2주 안봤다고, 얼마나 반갑던지요ㅠㅜ 일어서서 춤추고 떼창은 기본이고, 무대를 빛나게 하기 위해 어두운 곳에서 일하던 조명스텝, 진행스텝들까지 둘러볼 수 있었던 현장체험이었습니다. 함께여서 더 즐길 수 있었던 시간. 좋은 기회 주셔서 넘넘 감사해요:)





YGDP 평가회의

(2016.03.19 스스로넷 3층 Link10)

YGDP 종료 후 어떻게 지내는지 근황토크로 참가자 평가회의의 시작. 열린 평가회의로 3시간 지나서야 마무리 됐습니다. 회의가 끝나도 아쉬움에 자리를 뜨지 못하던 아이들. 센터 문이 닫을 때까지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누고, 새학기를 맞아 힘든 점.. 그 동안 잘못된 미안한 마음도 이야기하다 부둥켜 안고 울기도 하고~

“강사쌤 없이 결과발표회 준비 기간이 너무 힘들고 시간이 부족했어서 팀교육 결과물 중심으로 발표회를 했으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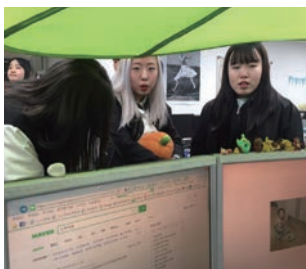
“팀인원수는 현재 인원에서 ‘아트디렉터팀’은 10명이었는데 서로 작업하는 것들을 보며 우리끼리도 더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 ‘작곡팀은 지금처럼 5명 혹은 6명이 좋을 거 같고, 작사팀은 조금 늘어도 괜찮을 거 같다.”

“정기적인 전체 자치회의를 진행했으면 한다. 팀수업 날짜가 달라도 프로젝트 참여 인원이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꼭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 팀끼리도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2주에 한 번은 가지는게 좋겠다.”

“결과발표회 때는 각자 발표를 해야 한다면 매일 수업일지를 써서 그 날에 대한 느낌과 작업과정을 남겼으면 좋겠다.”

“1기 추후 운영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프로젝트가 다 끝날 때쯤 친해져서 아쉽다. 팀에 구분하지 말고 작사+작곡+아트디렉터팀으로 동아리를 했으면 좋겠다. 결과발표회 때 아트팀이랑 같이 작업했던 게 좋아서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변에 음악 하는 친구가 없어 이야기 나누고 정보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아쉽다.”

이 외에도 구성, 홍보, 교육, 운영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고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은 2기 운영 때 적극 반영할 예정입니다. 우리 1기의 애정과 진심이 담긴 의견 감사♥



이진이(작곡팀)

- 정말 제게 너무 과분한 시간일 정도로 너무 감사했고 잊지 못할 교육이며 추억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 Thank you YGDP

남승엽(작사팀)

- 길지도 짧지도 않은 기간 속에서 많은 경험들을 했고 좋은내용들을 배워가서 매우 감사합니다.
- 많은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류지민(아트디렉터팀)

- 같은 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했던 수업이 좋은 익스퍼리언스가 된 거 같습니다 이러한 잊지 못할 추억과 경험할 기회를 제공해 주신 무주 와이지와 스스로넷 선생님들 그리고 타다 스튜디오 강사님들 모두에게 진한 감동을 표합니다.
- merci gracias arigatto...

신혜정(아트디렉터팀)

- 따로 적겠다
- 노찌 친구들, 아트팀 친구들, 재현, 민경, 힘든 시절 날 잡아준 책들의 저자들에게

성은비(아트디렉터팀)

- 모든걸 처음으로 경험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매 시간이 뜻깊고 신기하고 행복했어요. 5개월 동안 행복하다는 생각을 수 도 없이 했고 제가 원하던 일들에 진심으로 재미만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조금은 피곤하고 어려운 일들도 많았지만 그마저도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로 제가 희망하던 일들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가 끝날 생각을 하니 이제 무슨 낙으로 사나 싶다가도 앞으로 학교를 졸업하고, 하고 싶은일을 하며 살고 있을 제 미래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벅차옵니다. YGDP에 참여함으로써 막연하던 제 꿈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보단 설렘과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진짜 아트디렉터가 되어서도 이 프로젝트를 하며 느꼈던 새로운 감정들과 감사함을 잊지 않고 열심히 일할거라고 다짐했습니다. YGDP 1기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
- YGDP프로젝트를 하면서 진짜 '사회'를 조금이나마 가까이 경험할 수 있었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법을 배웠고 표현하는 법 또한 배웠습니다. 따뜻하고 너무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서 정말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우

리 아트팀 언니 오빠 동생들 항상 잘해주셔서 감사해요ㅎㅎ 아무것도 모르는 저한테 다그치는 거 없이 하나 하나 차근차근 알려주시느라 수고 많으셨던 이현쌤, 이슬쌤, 서영쌤ㅎㅎ 항상 친구처럼 편하게 대해주셔서 센터 가는 날이 기다려지고 행복했어요(하트) 너무 감사해요ㅎㅎㅎ 그리고!!! 자주 뵈진 못했지만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수업 오실 때 항상 좋은 얘기 해주시고 더 좋은 수업 해주시려고 노력해주신 대홍쌤, 연재쌤! 제가 표현을 잘 못해서 그렇지 항상 보고 싶었고 쌤들 오시는 날은 더 기대되고 괜히 힘도 나고 그랬습니다 하하..ㅎ 현장에서 모든 걸 직접 경험하고 계신, 쌤들처럼 멋진 분들에게 배우고 같이 대화하던 제가 자랑스럽고 이런 흔치않은 경험에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ㅠ 사소한 질문에도 뜻 있는 얘기들 많이 해주셔서 많은 걸 배웠어요ㅎ 해주시는 말씀들 다 잊지 않고 그 말들을 자극제로 삼아 열심히 살겠습니다!! 완전 감사해요(조심스럽게 하트..ㅎ) 또 프로젝트 하는 동안 열심히 할 수 있게 응원해주신 가족들, 친구들도 너무 감사하고, 비록 항상 만나는 건 아니었지만 만날 때마다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재밌는 말씀 많이 해주신 혜원쌤, 정연부장님을 포함한 스스로넷 센터 직원 분들 감사드려요:) 그리고 하나라도 더 많은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무주YG재단 현아쌤, 산희쌤, 희태쌤 고생 많으셨습니다! 덕분에 평생 못 잊을 좋은 경험 많이 했어요 감사해요ㅠ 프로젝트가 끝나도 1기 식구들 모두가 계속 소통하고 응원하는 서로가 됐으면 좋겠어요!!!!ㅠㅠ 마지막으로 너무나도 부족한 제게 이런 뜻 깊고 아름다운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를 주시고 아낌없이 왕창 지원해주신 무주YG재단과 스스로넷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한 한분 한분 모두 적느라 말이 너무 길어졌지만 전하는 글보다 더더더 감사한 마음이 커서 말로 다 못 전하는 걸 알아 주셨으면ㅎ... 물론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었지만 그마저도 감사하고 뿌듯했던 시간들이라 5개월이 어떻게 흘렀는지도 모를 만큼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YGDP 1기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

강유진(작곡팀)

- ➔ 이번 프로젝트로 인해 음악에 대해 더욱 알아가고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였던 것 같다 내 꿈에 한발짝 더 다가갈 수 있었고 한마디로 내 인생의 전환점이자 터닝포인트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나에게게는 너무나도 크고 소중한 기회이자 경험이었다 앨범을 만들어지는 과정을 체험하고 음악수업도 듣고 개인곡도 만들고 YG직원특강과 사옥투어 그리고 가꿈은 음악을 틀고 놀았던 그 시간들 전부 기억할 것이다 좋은 선생님과 좋은 언니,오빠들 만나 즐거웠었고 가고자하는 길이 같아서 더욱 애뜻했고 정이 많이 든 것 같다 솔직히 마지막이어서 너무 슬프고 안 끝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굴뚝같지만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꿈을 이룬 모습으로 다시 만나고 싶다 우리 모두가 만든 그 동안의 멋진 추억들! 나는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다
- ➔ 처음 오디션 합격해서 너무 좋아 평평 울었던 게 엇그제 같은데 오지 않을 것만 같았던 마지막이라는 문 앞에 벌써 다다르게 됐네요 저는 아직도 우리 오디션 합격자명단만 보면 설레고 떨려요 ㅎㅎ 저에게 음악을 배울 수 있게 소중한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리고 YGDP에 참여한 것은 진심으로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다고 생각해요 5개월 간의 달콤한 꿈을 그리고 우리가 불태웠던 그 열정들까지도 절대 잊지 않고 영원히 마음 속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공연을 끝으로 마지막이라는 게 아직 믿기지 않고 믿고 싶지가 않아요 지금은 비록 이렇게 헤어지지만 꿈을 이뤘다 말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꼭 다시 만날 수 있기를! 행복했어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Adios! 나의 YG Director Project♡

길보민(아트디렉터팀)

- ▶ YG 디렉터 프로젝트를 참여하면서 아트팀에서 또는 우리 프로젝트를 통해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ㅠㅠ 아트 디렉팅에 대한 것을 배울 기회를 얻은것도 감사하지만 특히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을 얻고 가서 정말정말정말 행복해용♥ 17기는 영원한피닷 첫 스타트를 끊은게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지만 앞으로도 모여서 만나는 일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다들 원하는 일 모두 이루시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사랑해용

지훈(작곡팀)

- ▶ 몇개월 동안이었지만 무언가를 배운다는 것을 진정으로 즐길 수 있었던 프로젝트였던 것 같아요. 이런 프로젝트는 처음이었는데 덕분에 (다 여자들이지만) 좋은 사람들 만나고 유익한 강의 들으면서 여러모로 만족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쌤들 너무 감사하고 모든 게 고맙습니다. 이모티콘 쓰면 안 되나요?

박예은(아트디렉터팀)

- ▶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것을 얻고 가 제자신이 더 성장한 것 같아요 ㅎㅎㅎ
- ▶ 함께 프로젝트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서 보람찼던 것 같아요. 벌써 끝이라니 너무 아쉽지만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서 행복합니다! 작사,작곡,아트 팀원들 다 너무 감사드리고 고생해주신 대학생멘토분들과 스스로넷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김은빈(아트디렉터팀)

- ▶ 꿈에 대한 욕심과 확신을 가질 수 있었고, 제자신이 성장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좋은 기회였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보낸 시간이 정말 짧게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면 할수록 느는 저를 보면서 하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고 그래서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넷 선생님들과 좋은 강사선생님들께 수업을 들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쌤들 짱짱!!! 말로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정말 좋았고 수업 가는 날이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 ▶ 안 되더라도 써보자 하고 추천서를 써주시면서 용기를 주신 김정민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말과 함께 친구처럼 친근하게 대해주시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신 이현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뒤에서 열심히 응원해주시고 모든 일정을 알려주시는 혜원쌤 정말 감사합니다. 볼수록 흥실 같아요! 수업으로 더 좋은 것을 알려주시고 많은 정보를 알려주시려고 하신 대홍쌤, 연재쌤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쌤들이 해주신 수업과 피드백으로 인해 제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더 열심히 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친구 같이 곁에서 열심히 도와주셨던 멘토 이슬쌤, 서영쌤 많은 걸 물어보면 항상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같이 수업 들으면서 친해진 19명 친구들! 처음에 어색했던 게 믿기지 않게 친해져서 신기한 만큼 많은 도움과 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공연기획팀 보민이 은비 그리고 이현쌤! 정말 고생이 많았고 수

고했습니다. 아트디렉터팀 정말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많이 사랑합니다. 작곡, 작사팀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YG 디렉터 프로젝트가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 꿈에 대한 확신과 욕심을 갖게 되었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해서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사람이 되겠습니다.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송민주(작사팀)

- 저의 2015년은 YGDP가 전부였어요. 마냥 꿈이던 작사수업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았고, 작사를 더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어서 좋았어요. 프로젝트를 하면서 좋은 선생님들, 좋은 친구들까지 만나서 너무나너무 행복했어요. 이제는 혼자 작사공부를 하는게 아쉽지만... 배운게 있으니 수월해 질 수 있겠조...? 꼭 더 많이 연습하고 누구나 알 수 있는 작사가가 되고 싶어요. 프로젝트 덕에 꿈에 대한 욕심?의지?를 더 키울 수 있었어요.
- 민지쌤,혜원쌤,이현쌤,석우쌤 그리고 우리팀 모두와 다른팀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정말 즐거웠고 감사했습니다! 2015년은 YGDP로 정말 행복했어요!..π

박수정(작사팀)

- 처음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는 잘 할 수 있을까, 2월이 오긴 올까 싶었는데 눈깜짝할새에 마지막 날이 오네요! πππ 5개월이라는 시간이 5주 정도처럼 짧게 느껴졌습니다. 또 어디 가셔도 하기 힘든 경험을 하고, 배움을 얻으면서 정말 나는 복받은 사람이구나 하고 많이 느꼈습니다. 막막하기만 했던 작사 공부를 직접해보고 같은 꿈을 꾸는 친구를 만나고 서로 격려해주면서 짧은 시간동안 정말 많이 성장한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신 yg, 서울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에 감사하고 그 기회를 잘 잡은 저도 칭찬해주고 싶네요..♥ 집보다 더 편했던 센터를 떠나려니까 많이 아쉽네요 물론 자주 놀러 올 거지만 이번 기회를 바탕으로 꼭 성공해서 다 ygdp덕이었다고 얘기하는 날이 오길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뜻깊고 즐거웠던 시간이었어요~
- 끝나는 날이 오긴할까 했는데 벌써 아쉬운 끝이 왔네요! ππππ 정말 아쉽습니다! πππ 일단 좋은 기회를 잘 잡아서 잘 끝낸 저 자신한테 고맙습니다! 학교 공문 잘 안 보는데 그날따라 읽은 수정이에게 (박수)ㅋㅋㅋ 사실같이 프로젝트해준 친구들이 제일 제일 고맙습니다! πππ♥ 너무 너무 즐거운 시간 만들어준 ☆최강작사팀 ☆ 세희언니, 민주, 연우, 승엽이! 항상 엄청난 에너지를 보여준 작곡팀, 제일 열일한것 같은 아트팀~ 덕분에 너무 좋은 추억 만들었어요 πππ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 가르쳐주시느라 고생하신 우리의 여신 민지쌤!!! 생 덕분에 작사라는 분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좋은 영향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올해 입시 잘치르고 꼭! 다시 제자로 찾아갈게요♡♡♡ 또 티격태격해도 항상 잘챙겨주신 우리 서구쌤\ 군대 잘 다녀오시면 예쁜 동생 되어서 찾아갈게요 그때는 철 좀 들어서 만나는걸로...☆ ㅋㅋㅋ 항상 감사했어요♡ 앞으로도 화이팅! 빼놓을수 없는 우리의 요정 정신없는 작사,작곡 맡아서 고생하신 우리의 해무룩, 오설 혜원쌤~ 혜원쌤의 천사같은 모습 진짜 매일 매일이 감동이었어요! πππ 저희 앞으로도 오래봐요...♥ 또한 이현쌤 덕에 센터가는 날이 흥겨웠습니다(어깨춤) 자주 놀러올게요 πππ 그리고 자주 못봤지만 항상 격려해주시

던 무주재단 쌤들께도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 기회주신 yg, 스스로넷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경험 바탕으로 꼭 좋은 인재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를 함께 하진 않았지만 언제나 제 꿈을 응원해 주는 부모님, 친구들, 진균쌤 형예쌤을 비롯한 선생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주신 사랑 오래오래 갚을게요! 다들 항상 건강하고 하는 일 다 성공하길♥♥♥♥♥

김세희(작사팀)

- ➔ 아직도 YGDP 모집 포스터를 처음 봤을 때의 두근거림이 잊혀지지 않아요.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붙을 수 있을까..." 하던 수많은 설렘들. 프로젝트가 다 끝나가는 이 시점에도 가끔은 이 모든게 꿈인듯한 느낌들이 때가 있어요. 17기여서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현장에서 이끌어주신 스스로넷 선생님들 덕분에 지금까지의 저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 5개월간 정말 꿈 같은 경험이었어요. 무엇보다도 바꾸지 못할 귀중한 경험을 선사해 준 무주YG재단과 스스로넷 관계자 분들께 감사합니다.
- ➔ YGDP를 알게해준 윤호오빠, 스스로넷 해원쌤, 민지쌤, 작사팀♥

유다영(작곡팀)

- ➔ 사실 입시하기 전이었던 12월까지지는 매 수업 거의 빠지지 않고 나갔어서 같은 팀원들끼리 얘기할 기회도 많고 얼굴 볼 기회도 많았는데 입시를 코 앞에 두고서는 많이 나가지 못해서 사실 별로 보지도 못하고 깊은 얘기들도 많이 못했던거 같아요. 물론 여러 일을 하느라 하나하나 자세히 신경 쓰지 못하고 책임을 다 할 수는 없지만 같이 못했던 시간들이 순간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아쉬움이 많이 남네요. 그래도 이번 일을 통해서 하나의 일을 할 때 제게 주어지는 책임감이 얼마나 중요한건지 알게됐어요. 팀의 만연니로서 끝까지 해준 팀원들에게도 너무 고맙고 선생님들께도 너무 감사해요. 이번 일을 토대로 많은 것도 경험해봤고 지속적으로 해왔던 입시 틀에서도 벗어나서 진짜 한 번 해보고 싶었던 스타일의 곡도 써보고, 가사도 붙여보고, 하나의 아트웍까지 완성시켜본 것도 너무 재미있었어요. 물론 단체곡 작업할 때는 서로의 의견차이 때문에 힘들었지만 그걸 토대로 저도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걸 느끼고 어떻게 해결해나가야 할지 그 방향을 잡은거 같아서 뿌듯해요.
- ➔ 입시기간에 YGDP까지 하려고 하니 모든게 지치고 짜증나고 힘들기 마련이었어요. 근데도 매번 카톡으로 격려해준 팀 아이들과 효범쌤, 해원쌤, 그리고 진짜 전화로도 되게 격려 많이 해주시고 응원해주신 기혁쌤도 너무 감사드려요. 작곡팀 이외에는 많이 만날 일이 없어 작사팀이나 아트디렉터팀과 많은 얘기도 못해보고 연락도 못했었지만 그래도 같이 끝까지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맙고 작곡팀도 고생 많았다.

김하림(아트디렉터팀)

- ➔ 5개월 동안 너무 즐겁게 활동했어요! 제 미래에 도움되는 조언들을 직접적으로 듣고, 배우고, 고민하고, 이야기해볼 수 있는 기회가 사실 흔치않은 정말 귀한 기회인데, 이런 활동을 통해 좋은 경험을 많이 할 수 있어서 더욱 더 좋았어요ㅎㅎ 특히 이번 활동을 통해서 좋은 인연도 많이 생기고, 진로에 대한 확신이 생겨서

너무 기뻐요ㅋㅋ 감사합니다!!

- 우선 이 프로젝트를 만들어주신 서울 시립 청소년 미디어 센터, 무주 YG 재단에게 감사한다는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항상 적극적으로 저희에게 많이 알려주시려고 열심히 수업해주신 대홍, 연재쌤도 너무 감사하고, 수업 마다 옆에서 항상 도움주신 서영쌤, 이슬쌤, 이현쌤도 감사드려요!!ㅋㅋ그리고 함께한 친구들도 같이 활동하면서 재미있었고 고마웠다고 말하고 싶네요ㅎㅋㅋ이런 프로젝트를 통해 배우고 가는 게 많아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다음에 만날 땐 각자의 목표에 한발 더 다가선 모습으로 뵈요!!♡♡♡

정연우(작사팀)

- 노랫말의 가사처럼 다른사람이 아닌 제가 YG 디렉터 프로젝트의 일원이라서 참 행운이고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에 당연한 건 없으니까요! 나중에 나의 18살의 가을, 겨울과 19살의 겨울, 봄을 되돌아 보면 덕분에 빛나고 두근거렸던 기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 떨리던 면접날부터 5개월 동안 동고동락한 세희 언니, 수정이와 민주, 막내 승엽이 정말 수고했고 그동안 너무 고마웠어. 주말에도 만나서 작업하고, 대표곡 쓰면서 센터 문 닫는 시간까지 열심히 해주고 작사 팀의 멤버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너희여서 참 다행이고 기쁘다는 생각을 해. 또 우리 작사 팀 열심히 가르쳐주신 우리 민지쌤! 정말 수고하셨고 감사했어요. 강의시간 3시간 동안 한 번도 지루하지 않고 두근거리고 신나는 시간이었어요. 나중에 또 다시 만나길 바랍니다. 어미새같이 저희 챙겨주신 혜원쌤과 이현쌤, 친구 같았던 멘토 석우쌤 감사합니다. 어색했던 피자 식사부터 어느새 편해진 작곡팀, 자주 보지는 못했지만 상냥했던 아트팀 다들 수고했고 알게 돼서 좋았어. 그리고 이런 기회를 만들어준 YG 무주 관계자분들, 센터에서 온 첫날부터 저희를 위해 뒤에서 묵묵히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한 분 한 분 감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사실 YG 디렉터 프로젝트에 지원을 하고 합격을 했을 때까지도 제가 이렇게 많은 걸 얻어 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저한테는 정말 새로운 도전이었고 갈망했던 부분이었으니까 그저 본분대로 열심히 작사만 배우고 가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상상 이상으로 좋은 분들을 만나고 다양한 것들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내 생활의 일부고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 참 위로가 되는 게 저에게는 이 프로젝트였는데 이제 끝이라니 많이 아쉽네요. 그래도 끝이 있기에 더 아름다운 추억이라고 간직하고 싶습니다. 발표회의 의미처럼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할게요. 모든 분들의 시작에 따스한 햇빛이 들기를 바랍니다.

박세한(작곡팀)

- 즐거웠다 나보다 친구들이 더 좋아했던 것 같다
- 한빈이, 친구들 예현이 가영이, 가족들

서승연(아트디렉터팀)

- 짧다면 짧은 기간이었지만 저에게 참 긴 시간이었는데 그 긴 시간을 알차고 기분 좋게 보내게 해주신 모든 분들한테 너무너무 감사드리구 참가하기로 마음먹었던 작년의 제가 참 기특하네요 ㅎㅎㅎ
- 앨범작업 하면서 지치구 힘들었는데 항상 격려해주신 이현쌤 사랑해요♥ 많은 걸 알려주시고 길을 제시해 준 연재쌤 대홍쌤도 감사드리구 같이 몇 달을 지낸 우리 YGDP 아트디렉터팀 모두모두 사랑해 !!!

한동희(아트디렉터팀)

- 9월에 면접을 보고 10월부터 시작된 수업은 저에게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첫 만남 때는 서로 어색해서 존댓말 쓰게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 마지막을 앞둔 지금은 서로 장난도 치며 많이 친해진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트디렉션에 대해 이론이 아닌 실습 위주의 수업을 받아 많은 도움이 되었고 마지막 결과 발표회까지 저희들이 직접 준비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소중한 사람들 만나게 되서 행복했습니다. (짹짹)
- 꿈으로 한발짝 다가가게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6개월 동안 소중한 날들을 보낸 것 같습니다. 좋은 친구들, 선생님들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2015 YG DIRECTOR PROJECT 1기 결과자료집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발행일 2016. 08

펴 냄 서울특별시립 청소년미디어센터, 무주YG재단

편 집 이정연, 김경은, 김이현, 오혜원, 이예림

인 쇄 디자인창고

YG DIRECTOR PROJECT 공식 커뮤니티

네이버 카페 <YG 디렉터 프로젝트>

*본 자료집에 실린 글과 사진의 무단게재를 금합니다.